

# '92바르셀로나올림픽 태권도 경기

이번 올림픽은 우리 역사상 지워지지 않을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뜨거운 폭염과 끝없는 언덕길을 넘어 문쥬익주경기장으로 들어서던 황영조.  
올림픽의 꽃 마라톤 우승은 오늘의 감격보다도 훗날 후세들에게 심어줄 역사적 가치가 더 클 것이다.

태권도는 시범경기로 올림픽무대에 참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관람석을 메운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어느 종목보다도 인기있는 스포츠임을 자랑했다.

유럽세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남자부는 저력을 과시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반면 여자부는 대만과 스페인에 밀리며 3위에 머무렀다.

태권도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태권도 경기를 분석하며 향후대책을 세워 본다.



 Barcelona '92



## 남자부 4명 출전, 금3, 동1 따내며 세계 정상 확인



▲올림픽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주인공들.

### 총 평

정열의 나라 태양의 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인류의 제전인 올림픽경기가 치루어 졌다. 태권도는 정식종목이 아닌 시범종목이라 올림픽에 참석한 우리는 아쉬움이 남았다.

태권도는 10회 세계대회 및 88년과 92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경기 및 진행의 모든면에서 안정을 가져온것 같다. 92년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참가국과 참가선수에 제한을 두어 국가별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전반적으로 각 나라 선수의 체력 및 선수의 기량이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나라에서 중주국인 우리나라에 전지 훈련을 통해 중주국 선수들의 기량과 개개인의 특기를 파악하고 자신의 훈련방법에 접목시키고 한국인 코치에게서 경기 기술 및 경기운영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경기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20여년이 지난 세계무대의 경기흐름과 한국대표팀 선수들의 기량을 비디오로 분석하고 경기 경험을 통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치루워졌던 태권도 전반적인 경기 평가를 하기로 하자.

경량급에서는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모든 선수들의 기량이 최정상급에 올라선 것 같다. 다양한 공격 동작, 받아차기 스템에 의한 공격, 공격과 받아차기의 공수전환의 빠름을 볼 수 있었다.

중량급에서는 체력과 신체 조건이 우월한 유럽 북미 남미 선수들의 스피드와 폭발적인 힘으로 단순동작의 공격과 받아차기는 상당한 기술을 겸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결 동작이나 공격과 받아차기에서 전환이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동작이 부드럽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었다.

중량급에서의 강세는 역시 유럽세였다. 아시아권에서는 볼 수 없는 큰 신장과 지칠줄 모르는 선천적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 선수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신장과 체력이 좋은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에 맞는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앞으로 중량급에서 많은 판도가 바뀌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든다.

중주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꾀하려면 지속적인 지원아래 훈련을 해야 하며 대표팀으로 선발된 선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제경기 및 친선경기 그리고 해외 훈련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다시 재장비하여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또한 태권도 경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이의 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동작들이 돋보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방식을 변화시켰으면 한다. 심판들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판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판정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 지도하는 코치,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동감할 수 있는 판정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태권**

'92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 경기결과

▲남자부

순위	국명	금	은	동
1	한 국	3		1
2	스페인	1	1	1
3	미 국	1	1	
4	베네주엘라	1		
4	덴마크	1		
4	멕시코	1		
7	캐나다		2	1
8	인도네시아		1	1
8	이 란		1	1
10	나이지리아		1	
10	터키		1	
12	대 만			2
12	이탈리아			2
12	이집트			2
15	오스트레일리아			1
15	프랑스			1
15	필리핀			1
15	쿠웨이트			1
15	요르단			1

소속: 전 서울체고 코치

나이: 39세(5단)

신장: 176 몸무게: 75

학력: 서울 광성고 졸업, 인천

체육전문대 중퇴

포상: 체육포장, 체육훈장 백

마장

▲남자부 코치: 주신규



주요경력: 제6회 아시아선수

권대회 한국대표팀 코치(1984)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한국대표팀 코치(1986)

아비장 국제태권도대회

한국대표팀 코치(1986)



## 한국여자대표 -스페인, 대만 이어 3위



▲귀국현경 카퍼레이드에 참가한 태권도 대표들.

### 여자부경기분석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25회 올림픽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다.

태권도는 서울 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한국선수단 2진에 포함되어 대망의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는 장도의 길에 올랐다.

태권도 대표팀은 임원 2, 선수8명(남4 여4)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12시간의 긴 여행끝에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한 선수단은 조직위에서 준비한 대형버스를 타고 olympic family village에 여장을 풀었다.

수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 사는곳, 말 그대로 소도시를 형성하는 듯한 분주한 모습 속에서 올림픽의 다양한 일면을 볼 수 있었다.

태권도 경기에 앞서 대표팀은 현지에서 충분히 적응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조직위측에서 계획한 훈련일정에 따라 sabadell 이란 체육관에서 선수단은 마지막 마무리 훈련에 비지땀을 흘렸고 언제나 예외없이 한국 선수단에 대한 타국 선수들의 주시는 종주국이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았다.

이번 경기는 다른 정식종목과는 달리 체급과 인



원을 제한하여 참가국을 확대시켰고, 메달분포 또한 확산시킨 경기방식이었다.

그래서인지 각 나라마다 입상하려는 의지가 어느대회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여자팀은 정해진 4체급(핀급, 밴텀급, 라이트급, 미들급)에 4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8월3일 첫날경기 (밴텀급, 웰터급, 헤비급)**

웰터급과 헤비급은 주최국 스페인과 미국의 한 판 대결이었다.

헤비급 경기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Corra(스페인)가 체급을 올려 지금까지 헤비급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Love(미국)에게 도전하였다. Corra 선수는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그날 모인 수천명의 스페인 관중에게 영광의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한편 밴텀급에 출전한 황은숙(상명여대)은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했지만 예선에 Ayala(푸에르토리코)를 맞아 확실한 득점획득으로 4:1판정승,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덴마크 선수를 3:0으로 제압하고 올라온 Hill(말레이시아)선수와 치열한 접전 끝에 4:2의 득점으로 결승의 문턱에 들어섰다. 결승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기대를 모은 Murry(미국)선수가 올라와 있었다. 예상대로 1회전 부터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고 1:1, 2회전에 상대의 몸통공격에 뒷차기로 응수하여 1득점, 3회전에서는 1점을 만회하려는 Murry의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원발돌려차기로 확실한 결정타를 얻어 3:1의 점수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8월4일 이틀째경기(플라이급, 라이트급, 미들급)**  
이날경기는 미들급 이선희(대한체육 과학대학) 선수의 첫 게임부터 시작됐다.

예선은 Alindogan(필리핀)선수를 맞아 일방적인 우세속에 가깝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여자부**

순위	국명	금	은	동
1	스페인	3		
1	대 만	3		
3	한 국	2		1
4	인도네시아		2	
5	미 국		1	3
6	캐나다		1	1
6	터키		1	1
6	프랑스		1	1
9	이탈리아		1	
9	뉴질랜드		1	
11	멕시코			2
12	그리스			1
12	모로코			1
12	베네주엘라			1
12	말레이시아			1
12	필리핀			1
12	영 국			1
12	오스트레일리아			1

소속: 전 상명여대 코치  
나이: 28세(4단)  
신장: 163 몸무게: 52  
학력: 상인천중, 인천체고, 경희대, 상명여대 대학원 재학  
포상: 체육훈장 백마장

**▲여자부 코치:임신자**



주요경력: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코치(1989)  
1985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1987년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1위



▲개막식에 참가한 대표팀이 손에 태극부채를 들고.

▲벤텀급 금메달 · 황은숙



소속 : 상명여대  
 나이 : 19세 (3단)  
 신장 : 160 몸무게 : 51  
 학력 : 고양여중, 고양여종고,  
 상명여대 2학년 재학  
 주요경력 : 1991년 제18회 대  
 학연맹 대회 1위  
 주특기 : 뒷차기

▲라이트급 동메달 · 정은옥



나이 : 23세 (3단)  
 신장 : 173 몸무게 : 60  
 학력 : 서울신암중, 인천체고,  
 상명여대 졸업  
 주요경력 : 1991년 제3회 세계  
 여자선수권대회 라이트  
 급 1위  
 1992년 제10회 아시아선  
 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주특기 : 돌려차기

▲미들급 금메달 · 이선희



소속 : 대한체육과대학  
 나이 : 20세 (3단)  
 신장 : 172 몸무게 : 64  
 학력 : 상인천여중, 문성여상,  
 대한체육과대학 2학  
 년 재학  
 주요경력 : 1992년 제10회 아  
 시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주특기 : 뒷차기

준결승은 Parmley(오스트레일리아)선수와 1회전 1:1, 2회전 1:1로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면서도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3회전 혼전의 회를 거듭하다 돌려차기가 적중 3:2 판정승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순간이었다.

결승전에는 Marcia(캐나다)와의 대전이었다.

1회전 서로 득점없이 공방전, 2회전 선제공격에 의한 뒷발찍기로 1득점, 3회전에서 1득점 전체 2:0으로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이었다.

라이트급에 출전한 정은옥선수는 예선에서

Diaz(푸에르토리코)선수와 4:1이란 일방적인 우승에 경기를 끝냈다.

준결승에서 강력한 대만의 Chen선수와 한판 승부로 겨루게 되었다.

1회전부터 서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졌다.

상대는 앞발돌려차기로 1득점이 인정되었고 정 선수의 앞발 선제공격이 주효했으나, 1:0으로 대만선수가 앞섰다. 신경전이 치열할 때 1득점이란 승패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듯이 긴장된 가운데 2회전에 진출, 1점씩을 주고 받아 2:1을 기록, 수

▲플라이급 동메달 · 서성교



소속 : 한국체육대학 4학년  
 나이 : 22세 (70. 5. 13)  
 신장 : 170 몸무게 : 60  
 학력 : 서울체중, 동성고졸,  
 한국체육대학 4학년  
 주요경력 : 1989년 제70회 전  
 국대회 편급 1위  
 1990년 제2회 세계대학 선  
 수권대회 편급 1위  
 1991년 우수선수선발대회  
 플라이급 1위  
 1992년 제10회 아시아태권  
 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1  
 위  
 주특기 : 들어찍기

▲페더급 금메달 · 김병철



소속 : 국군체육부대  
 나이 : 25세 (5단)  
 신장 : 178 몸무게 : 66  
 학력 : 인천 부평중, 인천 광  
 성고, 한국체육대학 졸  
 업  
 포상 : 1990년 기린장  
 주요경력 : 1989년 제3회 월드  
 컵대회 페더급 1위  
 1989년 월드게임 페더급  
 1위  
 1990년 제2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페더급 1위  
 1991년 제72회 전국체육  
 대회 페더급 1위  
 1991년 우수선수선발대  
 회 페더급 1위  
 주특기 : 뒷차기

▲웰터급 금메달 · 허태경



소속 : 강원도 춘천군청  
 나이 : 23세 (4단)  
 신장 : 180 몸무게 : 80  
 학력 : 서울 경수중, 서울체  
 고, 한국체육대학 졸업  
 포상 : 대통령 표창장, 체육훈  
 장 기린장  
 주요경력 : 1988년 제24회 서  
 울올림픽대회 태권도경  
 기 플라이급 1위  
 1990년 제4회 월드컵대  
 회 페더급 1위  
 1991년 제5회 월드컵대  
 회 라이트급 1위  
 89, 90, 91년도 대통령기  
 페더, 페더, 라이트급 1  
 위  
 주특기 : 뒷차기

많은 관중들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 두선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경기장은 떠나갈듯 했다. 마지막 3회전에 승부를 걸었다.

정선수는 집중적인 선제공격으로 2득점을 선취했다. 그러나 상대선수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어 최종결과 5:3으로 석패, 아쉬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로 최선을 다했던 경기이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경기였다.

### 8월5일 마지막경기(핀급, 페더급)

전날경기의 아쉬움속에 모선영(한국체대)이 출전한 핀급 경기에 기대를 걸었다.

예선전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Monica(멕시코)와의 시합으로 시작되었다.

1회전 서로 공방전을 펼쳤으나 득점없이 끝나고 2회전 2:1로 모선수가 1점을 앞섰다.

3회전에 상대의 공격을 뒷차기로 응수하다 실책으로 1득점을 잃었다.

연이은 찍기와 돌려치기로 득점을 얻는 듯 했는데 결과는 3:3으로 동점이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우세는 모선영에게 돌아올 것이라 기대를 가져봤지만 멕시코선수의 우세승으로 판정이 났다.

결국 여자부 경기는 총8개의 금메달 중 스페인 3, 대만3, 한국2개의 성적으로 3위에 머물렀다.

###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

이번 경기 역시 체력, 기술, 정신력 등 경기능력 전반에 걸친 각국의 실력은 대동소이 하거나 몇몇 나라는 우리를 앞서는데 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정책적인 지원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정상 을 회복하기란 어려울것 같다.

지금까지 종주국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는 안일한 막연한 기대는 한국 태권도가 특히 남자인 경우 정상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종주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배울수 있다는 장점으로, 학교체육이 발달되면서 두터운 선수층이 형성되고 이런 많은 인적자원 속에 좁은 진학의 문을 뚫기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자생적인 선수층이 형성된 것이 바로 한국국가대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다르다.

뿌리깊은 유교사상에 의해 아직도 여성의 태권도 수련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고정 관념이 여자 태권도 인구의 증가를 둔화 시키고 있고 그나마 몇몇학교에서 뜻을 가지고 선수를 양성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수 있는 인제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이런 어려운 현실속에 여자 태권도를 활성화 시키고 선수를 양성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체전에 여



자부를 신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아직도 그 바람은 요원하기만 하다.

가깝게 대만의 예를 들어보면 태권도는 대만의 국가장책 종목으로 설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대표를 복수로 선발하고 지속적인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가장 유능한 선수들을 재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를 2~4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하에 풍부한 실전적인 국제경험을 쌓게 한 뒤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대만선수들은 중요한 국제대회때 자신의 기량을 심분 발휘, 우수한 성적을 거둬으로써 『여자태권도는 대만이 최고』라는 평판을 얻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국제경험이 전혀없거나 고작 1년정도의 경험이 전부라고 할때 비교자재가 안되는 것이다. 올림픽을 대비하여 2년동안 태능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받는 동안 대표선수가 새로 구성된 것만도 4회를 기록한다.

또한 크고작은 국제대회마다 선수도 바뀌고 코치도 바뀐다.

무엇을 기준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선수 개개인을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국제경기에 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세심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가?

현대는 모든것이 빠르게 변해간다. 중국국이란



타이틀이 영원히 우리곁에 머무를 거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살피고 지켜줘야 우리 것이 된다.

태권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기는 지금 만개 가 되었다고 (여자는 피지도 못했지만)자만 할 것이 아니라 만개될 꽃밭을 어떻게 오래 잘 가꾸느냐가 더욱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대표팀을 맡아오면서 느낀 한국 대표팀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화려한 경기태권도의 진수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선수양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현대표선수를 보호할 수 있고 이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제도

### ▲ 헤비급 금메달 · 김제경

소속 : 국군체육부대

나이 : 23세 (4단)

신장 : 187 몸무게 : 87

학력 : 울산중앙중, 울산공고,

동아대 졸업

주요경력 : 1991년 제72회 전



국제육대회 헤비급 1위

1991년 우수선수 선발대

회 헤비급 1위

1992년 제10회 아시아선

수권대회 헤비급 1위

주특기 : 뒷차기

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나. 지금까지 본인을 포함한 나누어먹기식(?)의 코치배정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각종 세계대회의 성격을 고려해서 년간 계약제를 도입하고 지도자들도 책임을 지고 능력평가를 받는 전일코치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다. 제도적인 여자선수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 국가대표조차 보호 육성할 여건이 마련될 수 없다면 한국여자대표 선수들이 정상을 지키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요청된다.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시범경기인채, 다른 종목과는 달리 화려한 갈채나 관심속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차세대를 위한 미래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한다.

태권도가 무도에서 스포츠로 전환된지도 30여년, 경기규정에 의해 태권도 경기로 정착된지도 22년 이란 세월이 흘러 내년으로 제11회 (여자4회)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경기는 일정한 경기규칙, 안정성을 고려한 보호구, 정확한 판정을 위한 computer system 도입 등, 무도 스포츠로서 또한 경기종목으로서 중국의 유수나 일본의 가라테를 능가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86년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후 북경대회에선 유수에 밀리고 히로시마경기에서도 전체급 참가불허 또는 여자부는 제외될 것이라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88서울올림픽과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했으나 그나마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설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92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번대회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 『제1회 태권도 한마당』

- 기간: 1992. 12. 9. -11
- 장소: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 주최: 대한태권도협회

### △경연부문

품새: 기본품새, 창작품새, 건강품새(창작)

격파: 위력격파(손·발)

응용격파(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종합격파)

△참가자격: 유단(품)자

△부별구분: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참가신청: 1992. 10.20-11.10 17:00

대한태권도협회(420-4271~3)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제안서(창작및 건강품새, 종합격파시)

-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지부에서 배부

△대표자회의: 1992. 11.16 14:00

올림픽회관 1층 중앙당

(대표자는 필히 참석)

△기타: 참가자전원에게 참가메달증정

부문별 우수, 감독, 미기, 장려, 인기상 시상  
관중경품다수

# “제1회 태권도한마당”

—남녀노소 제한없는 태권도잔치, 참가방법을 알아본다.

격파와 품새대회로는 최초의 공식대회로 기록될 『제1회 태권도한마당』은 기존의 대회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겨루기대회가 일부 엘리트선수들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반면, 이 대회는 품새와 격파부문을 연령별로 구분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나이와 능력에 맞춰 참가가 가능한 생활체육대회로서 그 의미가 크다.

더불어 겨루기에 가려져 있던 태권도의 다른 기술들을 발현시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태권도가 겨루기 중심의 기술밖에 보여줄 것이 없으리라는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생활체육종목으로서의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많은 태권도인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4개부(소년, 청년, 장년, 여성부) 9개부문(품새3부문, 격파6부문)으로 세분하여 남녀노소,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금년 12월 개최되는 태권도 최초의 ‘열린 잔치’, 태권도한마당의 참가방법과 대회요강을 알아본다.

## 대회개요

▲참가자격 : 유단(품)자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1. 소년부 : 15세미만의 소년 유품자
2. 청년부 : 15세이상 35세미만의 남자 유단자
3. 장년부 : 35세이상의 남자 유단자
4. 여성부 : 고등학생이상의 여자 유단자

## ▲대회종목

경연종목은 9개부문으로 나누고(아래표 참고), 시범종목은 경연부문에서 다루지 않는 특수기술(호신술, 겨루기 등) 또는 특수격파를 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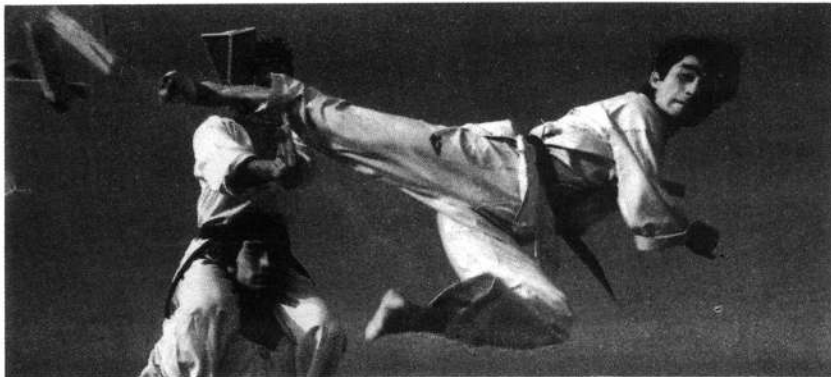
## 경연종목 소개

### ▲품새 부문

품새는 일반품새경연과 창작품새, 건강품새 등 3개부문으로 나뉜다.

### 1. 일반품새

일반품새는 기존의 태극1장부터 일여품새



중 선택 1, 지정 1개 품새를 경연한다.  
10명이내에서 단독, 혹은 단체 참가가 가능하다.

※부별참가 종목

종 목		부 별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택시 자랑	일반품새	기 존	○	○	○	○
	창 작			○	○	○
건강품새	창 작			○	○	○
	힘	손	손날		○	○
주먹				○	○	
발			○	○		
자 랑	용용격과	멀리뛰어 차기	○	○	○	
		높이뛰어 차기	○	○	○	
	종 합	○	○	○	○	

※일반품새 경연

구분	내용	품 새	선택	지 정
유품자		태극~금강	1	고려, 태극8장중 1
유단자		고려~일여	1	태백, 평원중 1

2. 창작품새

기존품새와 유사한 형태로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게 창작한 품새로서 기존 품새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의 상대와의 공방 또는 무기를 든 상대와의 공방 상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태권도 동작원리에만 부합되면 어떤 제한도 없다.

품수는 20-40개로 구성하며, 5명이내에서 단독, 혹은 단체참가가 가능하다.

단, 참가신청시 제안서를 별도 제출하여 협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건강품새

건강품새는, 태권도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품새와 창작품새의 구성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하되 형태는 체조나 에어로빅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전신운동으로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참가자수는 20명이내로 하고 경연시간은 2-5분으로 제한한다. 필요시 음악 또는 음향효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세트테이프는 본



인이 준비해야 한다.

단, 참가신청서 제안서를 별도 제출하여 협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 평가방법

### ▲격과 부문

격과부문은 위력을 측정하는 위력격과와 기술을 측정하는 응용격과로 구분되어 있다. 격과물은 각부문에 따라 송판, 벽돌, 기와로써 평가의 공정을 위해 협회에서 준비, 제공한다.

### ...위력격과(소년부는 제외)

#### 1. 손날

붉은벽돌을 격과한다.

#### 2. 주먹: 기와격과

#### 3. 발

송판을 격과하되 앞꿈치, 발날, 뒤꿈치를 이용한 모든 기술이 가능하다.

### ...응용격과

#### 4. 멀리뛰어차기(장애물 넘어 차기)

#### 5. 높이뛰어차기

상기 2개 세부종목은 장애물을 누가 멀리 뛰어넘어 차는가, 그리고 얼마나 높이 차는가를 평가한다. 단, 여성부는 참가할 수 없다.

#### 6. 종합격과

종합격과는 다른 부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고난도 기술이나 종합기술을 평가하되 격과물, 기술 등 모든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격과물과 격과보조자는 참가자가 직접 대동하여야 한다.

단, 참가신청서 제안서를 제출, 협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시범종목

상기 부문에서 제외된 태권도의 각종 기술이나 특기를 경연과 관계없이 발표하도록 한다.

이 종목 역시 아무런 제한은 없으나 신청서 제안서를 제출, 협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

### ▲평가원칙

모든 부문 심판진은 2-5명으로 구성하며 개별(단독 또는 단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점수제(품새부문, 종합격과부문)와 격과량(위력격과), 거리(멀리, 높이 뛰어차기)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즉시 표출토록 한다. 격과부문에 한하여 실패시 1회의 기회를 추가 부여한다.

### ▲세부 평가방법

#### 1. 품새부문

1, 2차 예선은 심판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를 합격시키며, 최종전은 고득점자 우선으로 입상순위를 결정한다. 동일점수인 경우 재경연을 실시할 수 있다.

#### 2. 위력격과부문(손, 발)

1, 2차 예선은 지정된 양을 격과한자를 합격시키며, 최종전은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많은 양을 격과한 순으로 결정한다.

#### 3. 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1, 2차예선은 지정된 거리를 뛰어넘어 격과한 자를 합격시키며 최종전은 예선전 이상의 거리를 임의 선택하여 시도한다.

#### 4. 종합격과

1, 2차예선은 심판의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자를 합격시키며 최종전은 고득점자순으로 입상을 결정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는 재경연한다.

### ▲채점기준

#### 1. 품새부문, 종합격과부문

- 자세-준비, 이동, 완료
- 정확성-동작의 표현, 힘의 전달, 숙련도
- 실용성, 고난도 구성의 조화



- 정통성 - 규정한 품의 표현, 타무술의 모방여부
- 독창성 - 의미, 예술성, 품새선

### 참가신청 방법

1. 참가신청서: 시·도 태권도 협회 또는 각급 연맹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선 도장 및 각급 학교에 공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2. 신청마감: 1992. 11.10(화) 17:00
3. 접수처: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  
올림픽회관 607호, 대한태권도협회  
전화(02) 420-4271~3  
팩스 420-4274
4.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1부(창작, 건강품새부문,  
종합격파부문, 시범경연부문 참가  
자만 해당)
5. 대표자회의: 1992. 11.16(월) 14:00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1층 중강당  
(대표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함)
6. 참가비: 없음
7. 기타: 참가자전원에게 참가메달 증정  
각 부문별 우수, 감투, 미기, 장려, 인기  
상 시상, 관중경품 다수  
기타 대한태권도협회로 문의 바람.

## 2. 위력격파부문

종목		구분	격파물	규격	1차예선	2차예선	최종전	비고
손	손 날		벽돌	적벽돌	1매	2매	3매 이상	
	주먹		기와		10매	15매	16매 이상	
높이차기	소년부	송 판	두께1cm	2.5m	2.7m	2.7m초과		
	성인부	송 판	2cm	3m	3.5m	3.5m초과		
멀리차기	소년부	송 판	두께1cm	2m	2.1m	2.1m초과		
	성인부	송 판	2cm	2.5m	2.6m	2.6m초과		
발	앞꿈치	송 판	2cm	3 매	4 매	5매 이상	동일조건에서 채점	
	발 날	송 판	2cm	3 매	4 매	5매 이상		
	뒤꿈치	송 판	2cm	3 매	4 매	5매 이상		

# 20년만의 태권도 시범,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국제경기 및 시범대회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이 베트남 올림픽위원회  
회의 초청으로 20년만에 파견되어 호치민시에서  
의 태권도경기 뿐만 아니라 수도 하노이에서 태권  
도 시범을 보임으로써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국 대표팀의 파견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베  
트남간에 체결된 체육교류협정에 따라 베트남 올  
림픽위원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호치민시  
에서 개최된 베트남 무도연맹 3주년 기념행사에 태  
권도를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한국 대표팀의 파견은 주월 한국군의 철수  
이후 20년간 단절되었던 양국 스포츠 교류의 재개  
뿐만 아니라 외교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 대표팀 14명 파견

한국 선수단은 강원식 단장(협회 전무이사)과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이규석교수를 감독  
으로 임원 4,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단장 : 강원식(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감독 : 이규석(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수)
- 코치 : 남승현(대한체육과학대학 직원)
- 국제심판 : 송우길(상임심판원)
- 남자선수
  - 핀급 : 이대훈(대한체육과학대학)
  - 플라이급 : 유성호(대한체육과학대학)
  - 밴텀급 : 이지철(대한체육과학대학)
  - 페더급 : 안홍엽(대한체육과학대학)
  - 라이트급 : 오영화(대한체육과학대학)
- 여자선수
  - 핀급 : 이순영(교양여종교)
  - 플라이급 : 김민정(대한체육과학대학)
  - 밴텀급 : 김은숙(대한체육과학대학)
  - 페더급 : 권혁실(대한체육과학대학)
  - 라이트급 : 김경숙(대한체육과학대학)



▲호치민공항 입국 환영식.

## 2. 일정별 활동사항

- 7. 16 06:30-09:30 태권도 심판세미나 : 80명 참가
- 7. 17 07:00-09:00 태권도 심판세미나 : 80명 참가  
19:00-22:00 태권도 경기  
경기전 태권도 승단자 단증 수여식(350명)  
태권도 지도자 선서식(60명)  
태권도 용품 기증식
- 7. 19 19:00-22:00 태권도경기  
경기종료후 베트남 태권도 시범단과 한국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 7. 20 하노이 도착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TA QUANG CHIEN)과 베트남 태권도협회 회장(NGUYEN HOANG HUNG) 예방, 기념품 증정  
19:00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주최 선상 만찬회 참가
- 7. 21 09:00-11:00 하노이 태권도연맹 인사들과 회합  
태권도 용품증정  
하노이 군인체육관에서 태권도 시범(베트남 무술연맹의 시범과 병행)

## 3. 대회 내용

베트남 국제경기 및 시범대회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의 호치민시 판딘퐁체육관에서, 7월 20일에는 하노이태권도 연맹의 주최로 하노이시 군인체육관에서 시범을 펼쳐보였다.

WTF규칙에 의한 겨루기에서 한국은 8전 5승 3패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태권도시범은 기본동작, 품새, 격파, 호신술 등이 펼쳐졌다.

### 한국 대 베트남 B 팀과의 1차 경기

#### • 남자부 3승 1패

핀급: 이대훈 대 TRAN MINH NGHIA 4:2 승  
플라이급: 유성호 대 VU DINH KHANG 1회 2분 15초에 K.O 승

밴텀급: 이지철 대 NGO CONG SON 3:0 승  
페더급: 오영화 대 KHUC CHANH BINH 2:3 패

#### • 여자부 2승 2패

핀급: 이순영 대 NGUYEN DINH NHU HUONG 2:0 승  
플라이급: 김민정 대 PHAN ANH BACH THUY TRANG 1:2 패  
밴텀급: 김은숙 대 NGUYEN YHUY SONG HA 1:1 우세승



라이트급: 김경숙 대 HHUC LIEN CHAU  
0:1패

### 한국 대 베트남 A 팀과의 2차 경기

- 남자부 3승 1패
- 편급: 이대훈 대 HO NHAT THONG 3:1 승
- 플라이급: 유성호 대 TA LINH VU 4:1 승
- 밴텀급: 이지철 대 TRAN QUANG HA  
0:1 패
- 라이트급: 안홍엽 대 NGUYEN DANG KHA-NH 3:0 승
- 여자부 2승 2패
- 편급: 이순영 대 TA PHUNG VAN 3:0 승
- 플라이급: 김민정 대 TRAN TAI MY LINH  
2:0 승
- 밴텀급: 김은숙 대 NGUYEN TAI THU  
THUY 0:0 패
- 페더급: 권혁실 대 LE THI KIM HUONG  
0:1 패

## 4. 대회참가에 따른 효과—스포츠 외교활동 측면

미수교국인 베트남에 태권도 붐을 조성하고 용품지원 및 우수한 시범행사를 통하여 양국협회의 신뢰기반을 조성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에서는 전복한 ITF계가 장악하고 있는 현지 태권도 연맹의 주요 간부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WTF로의 전향과 계속적인 한국 협회와의 교류의사를 밝히게 된 성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양국간 체육교류 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류계획의 추진을 기하는 한편 WTF 경기규칙의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5. 종합 평가

베트남 전쟁 종식후 공산화된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태권도 선수단의 파견 사업은

가. 현지 베트남 체육 및 태권도 관계자로부터 우호적인 환영과 입추의 여지가 없는 관중의 환호를 받는 등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확인했으며 이는 체육교류의 구체적 성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태권도에 관한 현지인의 관심이 매우 높아서 유도나 보비남(베트남 고유무술) 등에 비하여 5배 이상의 관중이 운집했으며 승단심사 합격자들의 엄숙한 의식과 태권도 기술세미나에 각 지역 태권도 유단자들이 참가함으로써 향후 태권도 보급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태권도 경기기술 측면에서는 남자는 한국에 비해 체력의 열세가 두드러졌으나 여자는 한국 고등학교 선수 정도의 숙련정도와 투지를 보이고 있어 동남아의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라. 수도인 하노이는 베트남 통일전까지 한국 태권도의 진출이 전무한 지역이었으나 이번의 방문 시범을 통하여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 6. 향후 베트남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가. 현재 국가 차원이 아닌 도시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호치민시 태권도협회 및 하노이시 태권도연맹을 베트남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통합 할 수 있는 베트남 태권도협회가 창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 우리측에서는 베트남협회에 대한 용품지원 및 지도자(사범) 파견을 통하여 태권도보급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미수교국인 베트남에 대한 지도자 파견은 향후 수교후의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인접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등 취약국가에 대한 아국의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태권**

# “경희대, 남녀 종합 우승”

제15회  
회장기 전국대학 대항  
대회 및 제2회 격파  
경연대회

8.28~29,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한국대학연맹에서는 전국대학  
인의 축제인 제15회 회장기 전  
국대학 대항 대회 및 제2회 격  
파 경연대회를 지난 8월 28일  
~29일 이틀간 올림픽공원 제1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연맹은 대회장소를 당초 제2  
체육관으로 정하여 준비하던중  
공원관리공단측의 부득이한 사  
정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큰 제1  
체육관으로 옮기게 되어 대회참

가자나 관중에 비해 경기장이  
너무큰 것을 염려했으나 모든  
임원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갈  
끔한 한편의 시나리오를 제작해  
냈다.

개회식에서 대학연맹의 이정  
길회장은 대회를 통해 오는  
10월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3  
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의 3연  
패와 대학캠퍼스의 건전문화정  
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에 걸쳐  
TV로 생중계됨으로써 대학태권  
도의 활성화 및 태권도 홍보에  
기여했으며 두번째로 개최된 격  
파경연대회는 무도태권도로서의  
태권도가 나아갈길을 새롭게 정  
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개회식 때마다 각학교  
별로 돌아가며 시범을 보여왔는  
데 이번대회에서 보여준 대한체  
육과학대학의 시범은 어느대회



때보다 성의 있는 준비와 손색 없는 기량을 보여줘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20개대학서 207명의 선수 참가

남자A조, 여자부, 남자B조로 구분되어 실시된 대회는 10월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일정관계로 예년보다 일시가 앞당겨진 관계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20개 대학에서 20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남자A조 페더급의 김성현(관동대)선수와 황용환(한국체대)선수의 경기에서는 김성현선수가 앞들러차기와 뒷차기 기술을 효과적으로 성공시켜 3점을 득점하여 8강에 진출했다.

여자부 경기에서 핀급의 유수진(경희대)선수와 강선영(상명여대)선수의 경기에서는 서로 득점을 주고 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유수진 선수가 적극적인 공격과 오른발 받아치기 공격으로 이번대회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어서 진행된 격과경연대회는 손기술의 위력격과와 묘기격과, 발기술의 위력격과와 묘기격과 4개종목으로 실시되었다.

긴장의 순간순간들은 모든 임원과 관중 선수의 시선을 한곳으로 집중시켰으며 특히 발기술 묘기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홍순철(경희대)선수의 공중3회 연속차기 경연은 장대를 감탄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입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이정길회장.

이번 대회를 통해 격과경연대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경기부분과 함께 무도부분도 병행해서 좀더 활성화된 태권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헤비급 김봉근 최우수 선수상 수상

여름을 보내기가 아쉬운듯 마

지막 무더위는 임원선수들을 땀으로 흠뻑젖게 한 가운데 연맹 이정길회장은 첫날 경기부터 한 경기도 빠뜨리지 않고 관전하며 임원 선수들을 격려했다.

남자A조 핀급 김정오(경원대)선수와 진송태(한국체대)선수의 경기에서는 김정오 선수가

### • 단체성적

구분	등위	학 교 명	금	은	동
남자부 A 조	1위	경희대학교	4	2	1
	2위	대한체육과학대학	1	2	1
	3위	동아대학교	1	1	1
	감투	관동대학교	1		2
	장려	조선대학교		3	
여대부	1위	경희대학교	3	3	2
	2위	한국체육대학	2		1
	3위	상명여자대학교	1	4	3
	감투	성신여자대학교	1	1	3
	장려	대한체육과학대학	1		4



▲개막식을 빛내준 대한체육과학대학의 태권도 시범.

●개인성적

구분	성명	학교명	학년	체급	비고
최우수선수상	김봉근	경희대학교	4	헤비	남대부
우수선수상	유성호	대한체육과학대학	3	플라이	
	박정희	한국체육대학	2	라이트	여대부
감투상	최기선	관동대학교	2	웰터	남대부
	이영미	성신여자대학교	2	웰터	여대부
장려상	신원덕	인천대학교	2	헤비	남대부
	백정자	동명전문대학	2	웰터	여대부
지도상	전정우	경희대학교			
	김준태	상명여자대학교			

2회에 1점 3회에 앞돌려차기 받아차기 공격과 뒷차기 공격으로 연속 3점을 얻고 4강에 진출했다.

역시 밴텀급의 김진홍(군산대)선수와 최성철(단국대)선수의 경기는 김진홍선수가 최성철 선수를 맞아 스텝을 이용한 연

결발차기를 효과적으로 성공시키는 등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4:3으로 역전시켜 4강에 진출했다.

헤비급 김봉근(경희대)선수대 김형태(조선대)선수의 경기는 김봉근 선수가 앞돌려차기와 뒷차기 기술로 매회 득점을 하여

김형태선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학태권도 동아리 참여 저조 아쉬워**

경희대학이 남녀 모두 종합우승으로 돌풍을 일으켰으며 관동대학 조선대학, 선수들의 활약도 다음대회에서는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대회를 위해 이틀간 TV 중계 해설로 수고한 이승국교수(한국체대, 연맹 실행이사)의 해설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와 태권도인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본 대회의 아쉬운 점이라면 대학동아리(남자B조)팀의 출전이 저조하였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회규정의 보완,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태권도**



# 리라공고, 남녀 고등부 동반 우승

**제3회  
체육 청소년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8. 16-8. 23,  
잠실 학생 체육관**



**김 부 영**  
중고연맹홍보분과위원장  
고려중학교 교사

중,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가장 큰 잔치인 중고연맹 대회가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성대히 막이 올랐다.

8월의 무더위도 선수들의 필승의 합성에 밀려 주춤거리고 있고 선수들은 저마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가슴이 마냥 부풀고 자신감에 넘쳐있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은평여고 밴드부의 광파제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회장단 및 내외 귀빈 입장에 이어 개회가 선언되었다.

이우생 중고연맹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본대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경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끈고 바르게 자라나 한국 태권도의 기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종주국의 태권도와 세계태권도를 이끌어가길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 줄 것을 당부 하였고, 김용재 전서울특별시시장의 축사에서는 앞으로 한국 태권도의 주춧돌 역할을 할 중, 고등학생 여러분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평소에 닦은 실력을 심분 발휘하여 끝까지 선전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대회전부터 경기에 따른 운영



▲고등부 제급부 우승자.

의 묘를 살려 보자는 임원들의 고심 또한 대단했다. 계속 늘어나는 참가 선수들로 인해 저변 확대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선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경기운영 및 일정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르는 대회 경비 등에 신중한 의논을 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이 무리한 대장정이 시작되어 각 체급별 경기가 열면 웅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7일간 계속되었다.

참가 선수를 보면 남자 고등부 822명, 여자 고등부 231명, 남주 중등부 588명, 여자중등부 108명 등 총1749명의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경수중.

222개교에서 참가하였다.

각부별 치열한 접전으로 펼쳐진 이번 경기는 TV중계방송 및 신문 등 언론에 많이 기사화됨으로써 국기 태권도의 홍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한편 경기도중 판정에서 약간의 불미

스러운 상황이 있었으나 큰 무리없이 최종일까지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리라공고가 남녀 고등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정상급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보여주었다.

### ●현장스케치●

#### 밴텀급 2위 김미영, 페더급 2위 김미선은 쌍둥이 자매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에 자그마한 고등학교에서 제3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여자 고등부에 나란히 출전한 쌍둥이 형제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주인공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남천동에 살고 있는 5형제 중 차녀 김미선, 3녀 김미영은 1974년 4월18일 몇분간격으로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태권도를 수련하기 전에 육상으로 체력을 키웠는데 두선수는 증원군 주덕면에 위치한 남신국민학교 3학년때부터 육상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동생 미영이

는 6학년때까지 단거리를 하였고 미선이는 음성여자중학교 3학년 초까지 중, 장거리를 하였다.

그후 주덕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호신술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국민학교에서 태권도 선수를 육성해온 김종은사범과 인연이 되어 정식으로 태권도 선수로서 수련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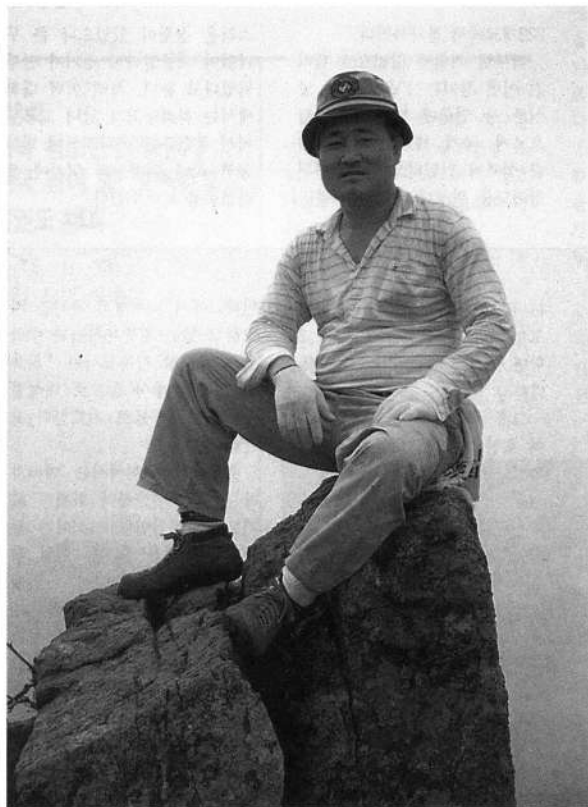
증원군에서 청주 서원국민학교까지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태권도 수련을 위하여 아버지가 매일 차를 태워다주고 연습을 마치면 데리고 오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버지의 정성이 아니었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수련 과정이었다. 현재 청주 서원국

민학교에서 80여명의 제자를 지도하고 있는 김종은사범과 주덕고의 장준성 감독교사는 『의욕과 체력이 좋아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선수들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대회에서는 여러차례 나란히 우승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미영이와 미선이는 전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서 아깝게 판정패하여 미영이는 밴텀급 2위, 미선이는 페더급 2위를 차지하였다. 미선이와 미영이는 그동안 열심히 보살피 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과 사범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태권**

이언호 청조치과 원장

# 어린이 무료 구강 진료사업 펼치는 태권도인



## 이언호

- 1941년 부산 출생
- 서울대 치의학과(85년) 및 동대학원 졸업(71년)
- 서울대 치의학과 보건학 전공 의학박사학위 취득(75년)
- 서울대 태권도부 10기
- 현재 청조치과 의원 원장

## 대학에 입학한후 태권도장에서 울려 퍼지는 기합소리에 이끌려 태권도부 들어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20여년간 창조치과를 운영하며 어린이 무료 구강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원호 원장이 태권도 유단자로 밝혀져 태권도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이원호 원장은 초단 승단을 끝으로 승단심사를 보진 않았지만 태권도와 계속 관계를 맺어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써온 인물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서울대 태권도부 19기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 태권도부 동문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원장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것은 서울대를 입학한 직후라고 한다.

“동승동 문리대 캠퍼스에 태권도 수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늘 힘찬 태권도 기합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기합소리에 매료되어 태권도부 문을 두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 태권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시작한 이원장은 예과 2년과 본과에 진학해서도 계속 태권도를 수련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본과 2학년 말 승단심사를 보다가 심사도중 도장 마루바닥의 돌출부분에 다리



▲생일날 가족과 함께



동승동 문리대 캠퍼스에 태권도 수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늘 힘찬 태권도 기합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기합소리에 매료되어 태권도부 문을 두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 태권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빼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아쉬운 것은 당시 다리부상만 아니었다면 승단과 함께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했을 텐데 그 계획이 빛나간 것입니다. 당시 태권도부는 특별히 어느 사범이 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고 또 그 후배가 승단을 하여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배로부터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지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이원장은 그러나 태권도 수련을 통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한다.

“태권도를 접한 이후 나의 생활은 태권도 정신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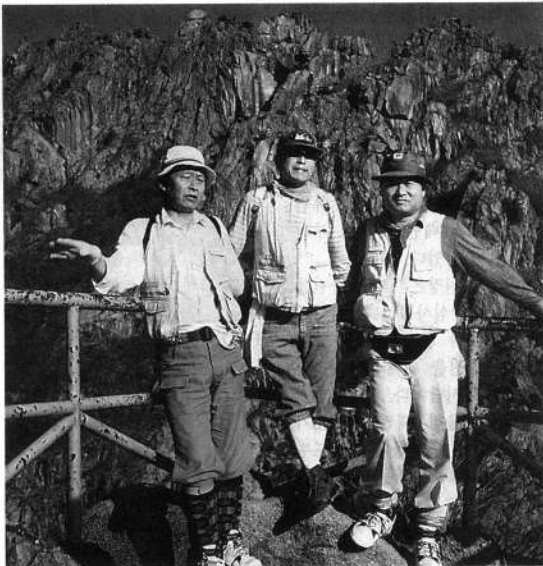
그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다.

당시 태권도부에는 100여명의 학생이 태권도를 수련했는데 같은 동기생들은 2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태권도 동문들은 가끔 만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며 태권도를 수련하던 날들을 이야기 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한다.

“동기중에는 한국일보 기자로 있는 정일화(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씨와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요즘은 만날 수가 없지만 그전에 그 사람이 북한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한동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때까지 계속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권도부 동문들은 매년 정기총회 및 동문 야유회등을 갖고 있고 태권도부 동문 중에 승진이나 학위취득 축하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만남을 계속해오고 있다.

“올해초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안병규(전 국회의원)선배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태권도 연혁을 집대성, 태권도사를 제대로 정리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즐긴다는 이연호씨.



태권도 정신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뿐더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권도가 중주 국민태도 불구하고 초라한 국민원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태권도 유품 및 사료 등을 전신한 태권도전당이 세워져 외국에서 태권도를 견학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줄만한 수련장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학교중심의 어린이 무료 구강진료사업을 앞으로는 고아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

이연호 원장은 20여년전인 70

년도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치아 향상에 관심을 가져왔다.

“청조치과 주변의 여러 국민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구강검사를 담당하면서 어린이들의 구강 보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80년도에 들어서면서 가공식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외식문화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만연되면서부터 충치질환 감염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홍보 덕분에 충치 감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한동안 높아가던 충치이완율이 이젠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의 주요 홍보내용은 설탕 덜먹기 운동, 하루에 이 세번 닦기, 식사 후 3분 이내에 이닦기 등으로 이원장은 주위의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무료로 구강 진료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진료와 병행해 10여년 전부터 영신국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반별로 건치아동을 선발해 해마다 시상을 해왔다. 건치아동선발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충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를 치료한 것이다.

건치 아동으로 선발된 어린이에게는 부상으로 노트나 크레파

스 등 학용품을 수여했다.

그는 이렇게 그동안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온 어린이 구강진료 사업을 앞으로는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취학 어린이들도 충치를 치료하는 경우가 요즘음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빼어할이라고 해서 유아들의 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추세라면 일선 고아원 등에서의 유아의 충치 이완율은 훨씬 높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구강 진료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 동생 이언기씨, 대학시절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선수로 이름 남겨

“태권도를 수련할 때 제생각에 이건 정말 좋은 운동이다 라는 생각이 당시 중학교 2학년 에 재학중이던 동생에게 수업을 마치면 서울대 태권도 도장으로 오라고하여 저와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였습니다.”

그가 데리고 다니면서 태권도 수련을 시켰다는 동생 이언기씨(현재 삼성종합건설 영남지사 관리팀장)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재학시절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는데 1학년때인 1970년도에 전국신인선수권대회 라이트급 우승, 2학년때인 71년도에 대통령기 2위, 제52회 전국체육대회

라이트 1위, 3학년때인 72년도에 제7회 중고 및 대학 개인전 1위, 10회 전국 중고 및 대학 단체대항전 1위, 53회 전국체전 라이트급 1위, 4학년때인 73년도에 제8회 중고 및 대학 개인선수권대회 웰터급 2위를 차지하는 등 대학 4년간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실력있는 아마추어 태권도인이었다.

이원장은 동생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재 치과 대학에 재학중인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딸에게도 태권도를 수련토록하여 유단자로 키웠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배우도록 강조한다.

“태권도를 통해 제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태권도 정신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뿐더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학과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태권도 정신은 바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지식이 겸비된 태권도 수련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을 동반해 줄것입니다.” **▶인터**

# 행동하는 지성, 사고하는 여성

## 고려대 태권도부

“

정의와 신의로써 인격을  
도야하자.  
예의와 사랑으로 단결하자.

”

### 고대에서 강연한 철의여인 대처 전 영국수상

고려대 태권도부를 방문하기  
로 한 날의 신문은 전날 “철의  
여인”이라 불린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방한, 고려대에서 강연  
을 했다는 기사들로 가득차 있  
었다.

지난 11년간 영국을 이끌었던

강인한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  
를 보여준 대처에 대한 고려대  
학생들의 관심은 대단했다고 한  
다.

사회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라  
는 태권도부원은 “대처의 강연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 중에는  
강의시간을 많이 빠져 나왔습니  
다. 그녀는 공정하고 평등한 법



92 9 4

제도야말로 자유와 번영의 기본 조건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냉소주의 마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력 부재, 관료 및 사회의 부패가 만연된 오늘의 한국사회에 그녀의 강연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고 소감을 피력한다.

정치지도력의 본질에 대해 『분명한 목적의식과 확신, 결단과 실천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밝힌 그녀의 강연은 장차 한국의 미래 주역으로 활동할 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심어주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수련통해 기술배우고 세미나와 레포트로 이론 연구

고려대 태권도부는 “행동하는 지성, 사고하는 야성”의 기치 아래 “정의와 신의로써 인격을 도야하자.” “예의와 사랑으로 단결하자”는 부훈으로 40여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태권도부의 수련 모습은 석탑의 고대 이미지와 그들이 보여준 민족, 민주, 민중에 대한 열망과 전담의 대처의 강연 모습과 어울어져 함차게 표효하는 호랑이의 강인함을 느끼게 한다.

고려대의 태권도장은 중앙도서관 옆, 사범대건물 뒷편에 자리잡고 있다.

“태권도장”이라고 새겨진 빛바랜 현판은 반세기를 이어온 태권도부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 주는 듯하다.



▲힐과 기를 모아 벽들을 격파(연무시범대회 및 고연전)

태권도장에는 60여명의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 중 여학생은 5명.

5시 30분부터 시작된 태권도 수련은 보통 6시 30분에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한시간을 뛰고 나면 도복은 땀으로 젖어 있기 마련이다. 태권도부원들은 각자 태권도복을 빨거나 빨래줄에 널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이 마무리 된다.

학생들은 태권도 기술향상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수요일과 금요일에 서울 지하철공사의 이상헌 코치로부터 태권도지도도를 받는다.

한편 태권도부원들은 태권도에 대한 레포트 작성과 세미나 등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기도 한다.

취재를 갔던 그날도 태권도장의 벽에는 태권도의 역사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태권도에 대한 이론적인 자료는 충분하더냐는 질문에 태권도부원들은 “태권도에 대한 이론서적이 있는가조차 몰랐는데 막상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 태권도와 관련된 서적이 있어 사실 놀랐다”는 대답이었다.

태권도 전공자들에게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불평을 들어야 했던 태권도에 대한 이론적인 자료가 태권도가 좋아 취미로 수련하는 학생들에게는 “의외로 태권도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상반된 반응을 읽으며 국가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미흡한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동아리 중에서도 태권도부원이 된 학생들은 어릴 때 태권도 수련 경험을 갖고 있어 태권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대학생활에서 다시 태권도를 수련하며 심신을 단련하고자 하





▲여름합숙 훈련 중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태권도부원들.

는 경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전혀 태권도를 접해본 경험이 없이 단지 "무도 태권도"의 강인한 이미지를 실제 자신의 모습 속에 가꾸려는 학생들의 자기개발 노력에 의해서라고 한다.

물론 지원자들은 태권도부에서 1년정도 보내게 되면 선후배간, 동료간의 예의와 친목 속에서 활동적이고 강인한 성격으로의 변모 등 자신이 기대한 것이 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 반세기를 이어온 고대 태권도부의 역사

고려대 태권도부가 결성된 것은 해방을 앞둔 1945년 5월, 당

시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한승조(현재 고려대 정경대학장) 씨와 이세영, 이종성씨 등이 주축이 되어 발족, 어언 50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1955년 5월 제 50주년 개교 기념식날, 그동안 틈틈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 제1회 연무 시범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고려대 태권도부는 매년 축제기간에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여왔으며 90년도부터는 연대와 함께 연고전, 고연전을 갖고 있다.

태권도부원들은 졸업과 동시에 "武友會"에 가입하게 된다. 무우회에는 기라성같은 선배 태권도인들이 각계각층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모교 교수로 3명이 재직하고 있고 14대 국회에는 3명이 배출되었다.

현재 무우회 회장으로는 전연기 삼화여행사 대표가 맡고 있다.

무우회는 태권도부 동문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재학생 태권도부에 대한 지원이 타대학 태권도부 동문회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권도부는 신입생들의 도복에서부터 각종 행사비용 등을 비롯해 해마다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합숙훈련의 경비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합숙훈련은 낙산에 있는 고대 학생수련장을 중심으로 설

악산 등반과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수구, 격구 등을 통한 힘든 일정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선 후배간의 친목을 다지는 것.

여름 합숙훈련은 태권도부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중의 하나지만 졸업한 선배들도 그 옛날의 추억을 못잊어 여름 휴가를 합숙훈련 기간에 맞춰 후배들과 동참하기도 한다.

또한 무우회는 태권도부 후배 중 대학기마다 서너명의 태권도부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태권도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대 태권도부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무우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하니 태권도부 동문회의 활약상을 짐작할 만하다.

### 태권도 수련은 인생의 준비 운동과도 같아

무우회 선배들은 고향을 찾듯이 태권도장을 찾아 후배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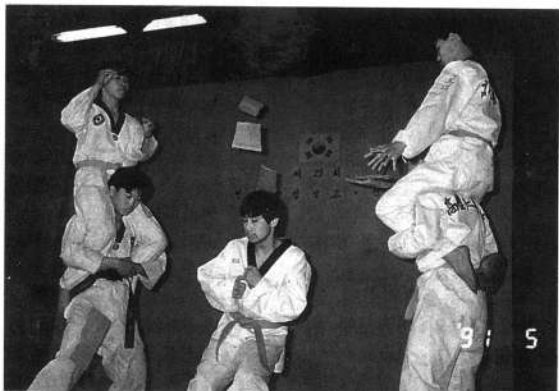
▲즐거은 추억의 시간(여름합숙훈련)

태권도를 수련하기도 한다.

태권도부 주장인 이기현(축산과 3년, 2단)학생은 "도장은 태권도부원들에게 있어 내집과도 같은 생활터전입니다. 졸업한 선배들은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향을 찾듯이 태권도장을 찾아옵니다. 재학생들도

수업을 마치면 늘 도장에 들러 태권도를 수련하고 맘을 홀리며 보내지만 그것이 전혀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운동과도 같은 것이지요. 태권도 수련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정신집중이고 스트레스 해소이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준다고 믿습니다."고 말한다.

끝으로 고대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의 위상에 대해 일본이 올림픽 스포츠로 유도를 키웠지만 순수한 무도차원에서 검도를 지키고 있듯이 태권도는 무도와 스포츠적인 측면을 구태여 한쪽으로 치우치려 하거나 두리몽실 함철 것이 아니라 무도로서의 태권도,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동시에 활성화 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태권**



◀축제때 연무시범을 보이는 태권도부원들.

## 여자부 올해만 4번의 종합우승 고등부 최강은 리라공고!!



▲제3회 체육청소년부장관에서 남녀고등부 우승.

### 올해는 리라공고의 해

지난 8월 22일, 제3회 체육청 소년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대회 마지막날 경기가 열린 잠실 학생 체육관은 고등부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한 리라공고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자부의 경우 올해에만 4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4회 경희대총장기, 16회 연세대총장기, 19회 중고연맹회장기 2연패 등으로 우승기를 차지한 바 있는데 3회체육청소년부장관

기 우승기마저 갖고가 명실공히 여자부 최강임을 자랑했다.

남자부의 경우 올해 연세대총장기 준우승, 대통령기대회 3위에 머물렀는데 체육 청소년부장관기에서 작년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하는 기쁨을 맞이한 것이다.

남산 중턱에 자리잡은 리라공고 정면에는 선명한 고딕체 글씨로 우승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학교와 동문후원회의 지원아래 오늘의 태권도부 위상 가능**

창조하는 기술인 양성, 협동

봉사하는 사회인 양성을 설립이념으로, 생산, 자립, 봉사의 교훈아래 1963년도에 설립된 리라공고는 전기과, 전자과, 건축과, 토목과, 전산과에 3000여명의 학생이 면학하고 있다.

리라공고의 권용팔 설립자와 김생수교장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교기로 채택하는 등 태권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보여주었다. 또한 태권도 동문 후원회(회장 이홍수)의 막강한 재정적 뒷받침과 모교 출신의 유수철 감독과 박영수코치

의 지도와 선수들의 성실한 훈련 자세가 합쳐져 오늘의 위상이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은 1971년도.

창단 1년만인 72년도에 개최된 제7회 대통령기대회에서 최초로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후 리라공고 출신으로 명성을 날렸던 선수로는 최정복(제1회 국제군인선수권대회 우승, 현 이화체육관관장), 강용구(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현 미국거주) 등이 국제대회에 출전 우승했다.

### 동문출신의 우수철감독과 박영수코치, 탁월한 지도능력 발휘

리라공고 출신인 우수철감독과 박영수코치의 지도 아래 고등부 최강팀으로 부상한 리라공고의 주역은 이제 대학진학을 앞둔 3학년생들.

남자부의 장덕진은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중고대회 페더급 우승을 비롯하여 대통령기 페더급 2위,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 2위, 경희대총장기 3위를 차지했고 핀급의 이강철(연세대 총장기 2위), 헤비급의 김길군(대통령기 2위, 경희대총장기 2위) 미들급 김상국(전국 중별 헤비급 2위, 경희대총장기 미들급 3위,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 헤비급 1위, 체육청소년부장관기 헤비급 3위)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여자부의 경우 미들급의 박상희는 1, 2학년때

의 성적을 제외하더라도 올해만도 7번의 대회출전에 모두 입상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92년도 여자국가대표 2위자이기도한 박선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과전 평가전에서 3위,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 미들급 2위, 전국여자개인 3위, 중고연맹회장기 1위, 경희대총장기 2위, 연세대총장기 3위, 체육청소년부장관기 1위를 차지했다.

페더급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선은 전국여자개인 1위, 중고연맹회장기 1위, 경희대총장기 2위, 연세대총장기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웰터급의 신은정은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 2위, 전국여자개인 3위, 중고연맹회장기 2위, 경희대총장기 2위, 연세대총장기 3위에 입상한바 있다.

이렇게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며 고등부 최정상상을 차지하게 되기까지 태권도부는 어떻게 수련을 해왔는가.

### 선체력, 후기술 배양과 공격형 선수육성

리라공고 태권도부는 "선체력, 후기술"의 기본방침과 자율훈련의 완벽한 조성으로 훈련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학교주변의 남산은 천혜의 체력훈련 코스로 적격이다. 태권도부원들은 남산 순환도로 로드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기술훈련에서는 "공격형 선수"로 만드는 훈련을 한다.

특히 실전위주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한사람이 각각 스타일이 다른 다섯명을 상대로 교대로 공격하며 이때마다 단점을 발견, 보완하는 훈련 등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유효 적절한 기술구사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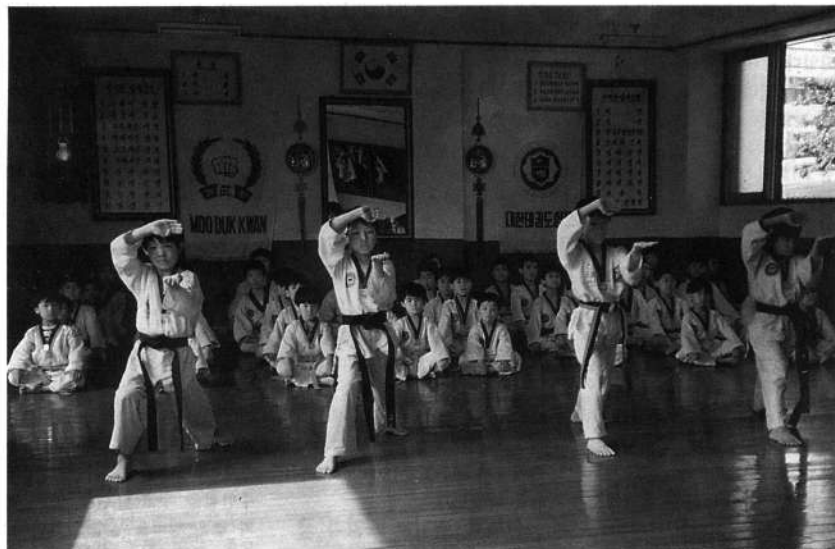
또한 비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아가며 단점을 보완하는 개인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자부의 경우 지난 90년도에 창단되어 아직 신생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명문팀들을 물리치고 3년만에 철용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녀공학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훈련 때문이라고 본다.

"여자선수들에게는 경기기술이나 감각, 신체적 조건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체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에 임한 결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우수철감독의 판단이다.

"남자부의 경우 워낙이 태권도의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부와 같은 정상 등극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체육청소년부장관기 2연패의 우승팀답게 더욱 성숙하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로 키워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육엔 태권도가 최고”



정일환 관장

신태인체육관은 1973년 7월에 문을 열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이도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정일환 관장이 신태인체육관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8년도에 지도사범으로 임명되면서 부터였다.

2년여동안 수련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늘 성실한 자세와 태권도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임으로

써 1980년도에 박효준관장의 뒤를 이어 신태인체육관 2대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관장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게 된 그해에 조동영회장이 부임하여 신태인체육관은 새로운 체제정비로 신태인에서의 제일가는 우수도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정관장은 도장운영에 있어 무

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이 수련생들의 심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도장을 찾는 학부형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다른 도장의 사범들보다도 이 부분에 더 열심히 치중해야 했던 것은 본인이 단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부형들이 지도자를 보고서 태권도 수련이 성장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선입견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태권도가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이나 지적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의 이론적인 연구자료가 그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이러한 정관장의 노력 때문에 현재 읍, 면의 인구 감축현상으로 태권도장도 그 수련생 수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태인체육관은 다행스럽게도 도시 못지않은 수련생들이 입관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정관장은 수련생들을 지도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孝”를 강조한다. 또한 수련생들에게 현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태권도인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고 한다.

또한 정관장은 88년 9월에 자신의 모교인 용곡국민학교에 태



▲아의수련모습.

“  
**도장운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이 수련생들의 심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도장을 찾는 학부형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

권도부를 창설하고 태권도부를 지도해왔다.

용곡국민학교 태권도팀은 창단 1년후부터 전국소년체전 등에 출전해 매년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

정관장은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에 인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후년인 94년도에는 대도시에 신태인체육관 2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현재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관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라이온스협회 309-F지구 총재의 유공 라이온 표창패와 봉사상 표창패, 정주시군 교육청, 교육장 감사패 등을 수상한바 있다.

현재 정관장은 정주시군 태권도협회 총무이사, 전북태권도협회 시설이사 및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 태권도 소식

## 대한태권도협회

### 전국체육대회부터 공인 경기용품 사용

경기용품의 품질 개선과 규격 통일, 질적향상을 위하여 태권도 경기용품에 대한 공인품이 지정되어 9월 1일부터 사용에 들어갔다.

공인용품은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73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품목은 팔다리보호대, 호구 살보대, 머리보호대, 매트이다.

특히 청, 홍 구분없이 단일색상(흰색)을 사용하던 머리보호대는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각기 다른 청, 홍 색상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 불가리아에 장경수시범 파견

불가리아에 최초로 태권도사



#### • 공인품

품 목	회 사 명
팔다리 보호대, 호구, 살보대	성민상사
팔다리 보호대, 호구, 머리보호대, 살보대	위너스스포츠
매트	마투산업
팔다리 보호대, 호구, 머리보호대, 살보대	상무사
팔다리 보호대, 호구, 머리보호대, 살보대	제우교역
팔다리 보호대, 호구, 머리보호대, 살보대	무술사

범이 파견된다.

불가리아대사의 초청으로 태권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담당하게될 태권도사범으로는 장경수 5단(5단)이 파견된다.

장경수씨는 인천체고, 한양대 체육과를 졸업했으며 인덕공고 태권도부 코치, 송암체육관을 운영한바 있다.

장경수씨는 재학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면서 62, 63, 65, 6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등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준바 있다.

### 제3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대표팀 파견

오는 10월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티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이정길 대학연맹 회장을 단장으로한 21명의 대표선수단이 파견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국 대학 재학 선수들의 대전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될 본대회는 그동안 2회의 대회에서 한국팀은 남녀부 모두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종주국의 위용을 자랑한바 있다.

## '92년 7월-9월중 승품. 단 심사대회 7회 실시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92년 7월-9월중 승품, 단 심사 대회 7회 실시하였다.

예년에 비해 승품 심사 참가 인원은 1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승단 심사인원은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평소 일선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파견 대표 선수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남녀 대표 16명과 임원5명을 파견한다.

- 단장: 이정길(대학연맹회장, 주 압정엔지니어링 대표)
- 남자부 감독: 류창용(대학연맹 부회장, 주 에이스 침대)
- 여자부 감독: 최영렬(대학연맹 전무이사, 경희대 교수)
- 남자부 코치: 문원재(한국체육대학 코치)
- 여자부 코치: 전정우(경희대 태권도부 코치)
- 남녀 선수명단

편급: 김정오(경원대 유수진(경희대))

플라이급: 맹성재(경희대)

장이숙(상명여대)

밴텀급: 김병욱(한체대)

이승민(경희대)

페더급: 안홍엽(대한체육과학대)

김성숙(성신여대)

라이트급: 박세진(경희대)

윤명숙(상명여대)

웰터급: 김광수(한체대)

조항미(경희대)

미들급: 박종범(한체대)

이성미(상명여대)

헤비급: 강승수(한체대)

윤현정(대한체육과학대학)

## 중화인민공화국에 박석암사범 파견

한중수교로 인해 중국에 태권도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무역중심지 위해시에

최초로 파견될 태권도 사범은 박석암씨(4단)로 현재 개포동 소재 한신스포츠센터 태권도 강사로 재직 중이다.

박씨의 중국 파견은 지난 7월 중국 위헤시 인사 3명이 내한해 스포츠센터에서 태권도를 견학한후 위헤시의 태권도보급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박씨는 9월초 초청장을 접수, 1차적으로 위헤시 현장의 태권도 보급 및 사범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9월말 출국했다.

구 분	심사일자	1 품	2 품	3 품	계
승 품	7. 5	1,208명	410명	99명	1,717명
	7.19	1,201	456	113	1,770
심 사	8.23	1,595	526	150	2,270
	9.6	1,170	434	120	1,724
	9.20	1,181	427	106	1,714
승단심사	8.16	472	168	113	753
고 단 자	9. 5	4단 99명	5단 22명		121명





# 태권도 소식



체육관 사범들의 정성어린 지도 덕분에 합격률은 향상되었으며, 학부모들의 참여도도 대단하였다.

대회별 참가인원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서울-미국 청소년 남녀 대표 친선대회 개최

서울-미국 양팀 태권도의 미래를 짊어준 청소년들의 경기교류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친선대회가 지난 5월 7일-9일까지 국가원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청소년 대표팀은 윤철구 재무총장 인솔하에 남자팀 감독에 JEROME REITEN BACH 씨, 여자팀 감독에는 김홍광씨가 수고하였고 코치는 최권성 사범이 지도를 맡아 양팀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를 펼쳐 중주국 태권도 선수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였다.

## 제13회 협회장기 어린이 겨루기 대회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여름방학과 함께 맞이한 제 13회 협회장기 어린이 겨루기 대회가 지난 7월 22-24일까지 3일간 짜는 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체급별 우승자에게는 각각 1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출전 선수들은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모범적인 경기를 펼쳐 박수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단체우승은 중마국교, 준우승은 은천국교, 3위는 광희국교가 차지하였다.

장학금 지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체 급	소 속	성 명	비 고
편 급	고덕국교 5-2	이 소 룡	장학금 10만원 지급
플 라 이 급	신시흥국교 6-3	김 정 훈	-
밴 팀 급	은천국교 6-7	최 성 호	-
페 더 급	중마국교 6-2	우 경 원	-
라 이 트 급	면목국교 6-8	김 재 관	-
라이트웰터급	은천국교 6-7	송 두 섭	-
웰 터 급	중마국교 6-7	이 동 영	-
라이트미들급	광희국교 6-10	이 승 환	-
미 들 급	거여국교 6-4	김 준 식	-
라이트헤비급	천호국교 6-1	서 경 환	-
헤 비 급	수유국교 6-6	오 재 철	-

고등부 라이트급 4강에 안착하였다.

제10회 아시안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강창모(사하구)는 11일 마지막날 일만부 페더급에서 앞차기 뒤차기 등을 구사하며 양종판(동해구)을 5:1로 제압,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김정수(개금고)는 고등부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팀 선배인 조국환(개금고)을 받아 차기 등을 적중시켜 10:8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하는 이번을 낚기도 하였다.

## 제12회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 개최

열 두번째 맞이한 서울시 교육감기 초, 중, 고 단체대항 및 개인 선수권 대회가 지난 3월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초, 중, 고교 선수 1, 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벌인 끝에 국교부 우승은 은천국교가 차지하였고 중등부 우승은 경수중학교, 고등부 우승은 송곡 고등학교가 차지하였다.

<서울 박노규·김중오편집위원>

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제73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 및 제8회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벌어진 2회전 고등부 페더급 경기에서는 지난해 부산대표 김민우가 특기인 앞돌려 차기 등으로 윤종철(개금고)을 3:2 판정으로 따돌리고 4강에 합류하였으며 또 지난해 체육부장관배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조국환은 박상석(동천고)을 뒤차기 등으로 6:4 판정승을 거두고

## 제4회 승품. 단 심사대회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1,900여명의 응심자자 참가한 가운데 승품. 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용수 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차진 부회장의 대회사 있었으며 부산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수 명단

체 급	고 등 부	대 학 부	일 반 부
편 급	석 운 용(개금고)	조 영 국(동아대)	최 홍 현(영도구)
플라이급	강 병 선(-)	지 재 기(-)	권 재 용(해운대구)
밴 팀 급	이 임 수(-)	황 동 환(-)	배 종 임(북 구)
페 더 급	최 성 훈(동천고)	김 성 구(동아대)	강 창 모(사하구)
라이트급	김 정 수(개금고)	심 정 훈(동의대)	정 일 권(해운대구)
웰 터 급	박 신 준(부산제고)	김 호(동아대)	김 공 배(남구)
미 들 급	신 원 조(-)	강 동 국(-)	장 재 철(해운대구)
헤 비 급	김 관 수(송도상고)	최 종 국(동아대)	최 일 규(동래구)

## 부산직할시협회

## 제73회 전국체육대회 대표 선발대회겸 제8회 협회장기 대회개최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 태권도 소식

▲ 표창 수상자  
김상진(동아체육관)  
김숙자(광명체육관)  
손동국(승리체육관)  
김순곤(충일체육관)  
정봉만(광안종합체육관)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 인천직할시험회

### 전국체전 인천대표 선발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회장·윤치영)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1천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인천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품새와 겨루기부문으로 경기가 진행, 출전선수들의 사기는 물론 관중들로부터 열띤 환호를 받았다.

이번대회에 참가한 8백여명의 선수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기

량을 차분히 전개하는 등 보기 드문 기술발차기와 힘찬 동작을 선보여 보는 이들로부터 힘찬 갈채를 받았다.

특히, 겨루기부문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지난해 보다 향상된 경기를 펼쳐 인천 태권도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 태권도 협회는 협회장기에 이어 15일 인천실내체육관에서 99명의 선수가 참가할 가운데 제73회 전국체전 인천대표 최종 선발전을 갖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별로 대표 24명을 선발, 훈련에 들어갔다.

제73회 전국체전 인천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고등부

핀급: 이상철(인천체고)  
플라이급: 김정식(부평기술포)  
밴텀급: 김형원(선인고)  
페더급: 정기원(·)  
라이트급: 최영준(광성고)  
웰터급: 문광선(·)  
미들급: 길호남(인천체고)  
헤비급: 이정훈(광성고)



### ▲ 대학부

핀급: 김용민(인천전문대)  
 플라이급: 박재성(한체대)  
 밴텀급: 조영근(인천대)  
 페더급: 박택용(한체대)  
 라이트급: 박의성(-)  
 웰터급: 유용조(-)  
 미들급: 김정규(경희대)  
 헤비급: 신원덕(인천대)

### ▲ 일반부

핀급: 홍순갑(팔봉전산직업훈련원)  
 플라이급: 전동준(인천협회)  
 밴텀급: 최동수(팔봉전산직업훈련원)  
 페더급: 김병철(상무)  
 라이트급: 인한순(-)  
 웰터급: 서재춘(팔봉전산직업훈련원)  
 미들급: 민홍주(-)  
 헤비급: 배성진(인하체육관)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 광주직할시협회

### 제6회 회장기 초, 중, 고등학교 대항 태권도 대회

제 6회 회장기 초, 중, 고등학교 대항 태권도 대회가 7월 11일~12일까지 2일간 영주 종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초등부 17개팀에 230명, 중등부 5개팀 120명, 고등부 4개팀 110명 총 460명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 두암국, 상무중, 광

주체고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종합성적)

▲초등부: 1위 두암국, 2위 양동국, 3위 풍향국

최우수선수상: 오세종

▲중등부: 1위 상무중, 2위 북성중, 3위 문성중

최우수선수상: 김경훈

▲고등부: 1위 광주체고, 2위 고려고, 3위 국제고

최우수선수상: 한창호

(부별 체급별 우승자)

▲초등부: 김상경(운암국) 김진모(풍향국) 문병욱(중흥국) 최홍식(월산국) 최지문(풍향국)

김주모(월산국) 백기주(풍향국)

한종갑(장산국) 서수영(대성국)

오세종(두암국) 김남용(효광국)

▲중등부: 김의철(문성중) 김정태(광주체중)

손홍성(상무중)

고필석(북성중) 김경훈(상무중)

고병희(북성중) 송승관(상무중)

류 권(북성중) 김선길(북성중)

염 균(용봉중) 문형철(북성중)

▲고등부: 양용현(고려고) 차승준(정광고)

김용욱(광주체고)

한창호(광주체고) 박용춘(광주체고)

정재훈(광주체고) 권태형(광주체고)

하종선(국제고)

### 제6회 교육감기 초, 중, 고등학교대항 태권도 대회

제 6회 교육감기 대회가 9월 5일~6일까지 영주 종합 체육관에서 2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감기 고등부 경기에는 전국체전 대표로 선발된 선

수들이 출전치 못함에 따라 열기가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두암국, 광주체중, 광주체고가 각각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종합성적)  
 ▲초등부: 1위 두암국, 2위 양동국, 3위 중앙국

최우수선수상: 정박은빛

▲중등부: 1위 광주체중, 2위 북성중, 3위 상무중

최우수선수상: 신혁구

▲고등부: 1위 광주체고, 2위 국제고, 3위 고려고

최우수선수상: 윤병석

(부별 체급별 우승자)

▲초등부: 정푸른솔(두암국) 정박은빛(두암국)

김진모(풍향국) 최홍식(대성국)

김희석(양동국) 정경오(비아남국)

정선호(광주서국) 조기호(광천국)

서수영(대성국) 조재형(송정서)

김남용(효광국)

▲중등부: 채익기(북성중) 이경석(북성중)

김정태(광주체중)

이승주(상무중) 박상석(광주체중)

신혁구(광주체중) 송승관(상무중)

류 권(북성중) 이상학(상무중)

염 균(용봉중) 백동호(광주체중)

▲고등부: 김부권(광주체고) 최진호(광주체고)

조성용(고려고) 박진영(국제고)

박용춘(광주체고) 윤병석(광주체고)

마성진(광주체고) 박용용(광주체고)

### 승품(단)심사서 565명 합격

광주협회는 8월 2일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를 실

# 태권도 소식

시한 결과 1품 297명, 2품 76명, 3품 17명, 1단 102명, 2단 32명, 3단 25명, 4단 15명, 5단 1명 등 총 565명이 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 연변대학에 세종체육관 준공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전인 90년도부터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자치구에서 동포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애써온 광주의 세종체육관 문일호 회장등 일행이 그동안 수차례 연변을 방문하며 추진해온 연변 세종체육관 건립이 완공되어 8월말 준공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세종체육관은 1990년 10월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초청으로 태권도인으로서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고 태권도 보급 및 지도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토론한바 있으며 연변대학 세종체육관 건립 후원회를 결성하였다.

1년만인 91년 11월 연변대학을 다시 방문한 세종체육관 관계자는 연변대학 세종체육관 기공식을 가졌고 올해 8월 그결실을 보게됨으로써 준공식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올해초 연변대학 체육학과에는 태권도가 정식과목으로 설정되어 세종체육관의 김중삼 사범이 파견되어 태권도 지도를 맡아 왔다.

〈광주 윤웅석 편집위원〉

## “쌍둥이 형제, 핀급, 플라이급에서 나란히 우승”

두암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정 푸른솔과 정 밝은 빛은 쌍둥이 형제이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과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일관성 쌍둥이인 형제는 학교에서 모범생임과 동시에 체육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수련하여 이번 교육감기 대회의 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형제가 수련하고 있는 전남체육관 22도장의 송 재규 관장은 『푸른솔과 밝은 빛은 태권도 미래의 주역으로 자랄 것을 확



▲정푸른솔과 밝은빛, 오른쪽이 송재규 관장.

신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대전직할시협회

### 제1회 러시아 국제태권도대회 대회 대전시 선수단 출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회 러시아 국제태권도대회에 대전직할시 선수단이 파견되었다.

선수단은 홍성표 충남대 학생부처장을 단장으로 충남대에 재학중인 선수 8명이 출전하였다.

남자부 8명으로 구성된 선수로는 편급에 정주철, 플라이급 민경필, 밴텀급 윤희준, 페더급 손효봉, 라이트급 민경승, 웰터급 황일선, 미들급 구기정, 헤비급 안성주가 파견되었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 전라북도협회

### 제4회 승품(단) 심사대회서 911명 합격

제4회 승품(단) 대회가 8월 23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정금수, 장한철 부회장 및 많은 내외 귀빈 학부형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열린 승품(단) 심사대회에서는 총91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는 1품:414명, 2품:146명, 3품:32명, 1단:195명, 2단:79명, 3단:45명이다.



### 제4회 도지사배 단체 대항 전 및 개인 선수권 대회

제4회 도지사배 태권도 대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장에는 강상원 전북 도지사과 이건수 전북협회장, 정금수 부회장 장한철 부회장 등 전 북협회 임원과 태권도 관계인들이 참석, 대회에 참가한 많은 선수들을 격려한 가운데 열전이 펼쳐져 함열중, 군산중앙고, 흥덕중, 김제북고, 용지체육관이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성적)

▲국교부: 1위 성송국, 2위 군산금광국, 3위 송광국, 장려상 금광국

▲중등부: 1위 함열중, 2위 완산중, 3위 고창남중, 장려상 신태인중

▲고등부: 1위 군산중앙고, 2위 함열고, 3위 김제북고, 장려상 신태인중고

▲여중부: 1위 흥덕중, 2위 용지

중, 3위 왕신여중

▲여교부: 1위 김제북고, 2위 김제상고, 3위 여산고, 장려상 고창여고

▲일반부: 1위 용지체육관, 2위 김제화랑체, 3위 변산화랑체, 장려상 제일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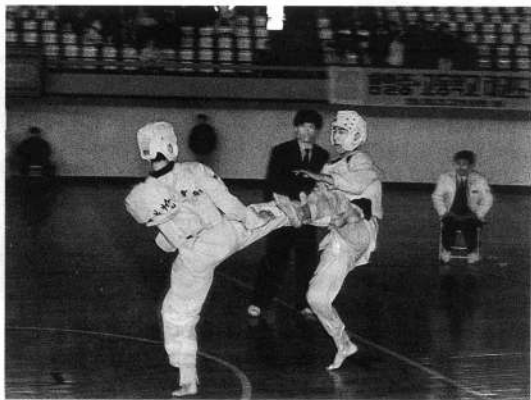
(부별 우승자 명단)

▲국교부: 박창순(청송국) 정대성(성송국) 김성두(군산금광국) 김도영(군산구암국) 박기정(군산금광국) 강 원(성송국) 서정주(남창국) 조 석(성송국) 장기성(성송국) 권 결(금평국) 한철희(함열국)

▲중등부: 김대현(고창남중) 고영성(함열중) 문형효(완산중) 황길재(고창남중) 안성식(완산중) 김영수(함열중) 장우영(군산남중) 오재화(함열중) 국춘근(완산중) 국준현(함열중) 김동산(함열중)

▲여중부: 이미형(왕신여중) 김현주(흥덕중) 김수현(흥덕중) 전정화(흥덕중) 김 선(왕신여중) 백영미(장계중) 김미라(계

# 태권도 소식



남중 강명은(기린여중) 강문선  
(풍남여중) 권민경(전라여중)  
김단호(기린여중)

▲여고부: 김보인(김제북고) 김  
희성(김제북고) 박경선(김제상  
고) 정건순(김제상고) 장은이  
(김제북고) 정미화(김제북고)  
양춘희(김제북고) 박정숙(김제  
북고)

▲고등부: 정주화(김제서고) 고  
경진(김제서고) 이병석(만경고)  
윤영주(고창북고) 조동진(군산  
중앙고) 김진완(함열고) 김경준  
(신태인중고) 김상필(함열고)

▲일반부: 김재욱(김제화랑체)  
박정희(부안청도체) 서명수(용  
지체) 송동섭(용지체) 김대원  
(용지체) 홍영길(금마체) 임한  
선(제일체) 유충열(용지체)

## 관장·사범 총회 개최

전북태권도 협회는 9월5일 협

회 회의실에서 전북태권도 관  
장, 사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  
에서는 승품, 단 심사와 태권도  
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을 위해 12월 심사부터 심사대  
회를 심사 경연대회로 변경운영  
하는 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  
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각 지역  
관장, 사범들간에 축구경기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 경상북도협회

### 제73회 전국체전 경북대표 팀 선발대회

제73회 전국체전에 참가할 경  
북대표 24명이 선발되었다.

최종선발대회는 지난 6월 29



## “51세의 미국인 에럴던씨, 2 단 승단”

제4회 승품단 심사대회가 개최된 전주실내체육관에는 천여 명의 응시자중에 외국인인 한명 있어 태권도인들의 시선을 주목시켰다. 51세로 미 공군부대에 근무중인 에럴던은 태권도를 3년간 수련해 2단에 응시, 정신을 집중하고 한 동작 한 동작에 힘을 발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에럴던과의 인터뷰.  
-태권도를 배우게 된 동기는?  
• 취미생활로 태권도 수련을 시

작하였다. 태권도의 멋진 동작, 예의를 강조하는 태권도 정신에 매료되었다.

-태권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은?

• 어려웠던 점은 없고 딸뻘이며 열심히 수련하는 보람을 느낀다.

-나이가 51세인데 힘들지 않습니까?

• 힘은 좀 들지만 사범님의 지도 속에 태권도 수련을 계속해오고 있고 태권도 유단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고등부 67명, 대학부 9명, 일반부 19명 등 총 95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져 체급별 우승자가 전국체전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부별 우승단명단)

### ▲고 등 부

핀급: 강상희(경북체고)  
플라이급: 정창욱(영천고)  
밴텀급: 김진호(영천고)  
페더급: 오인수(경북체고)

라이트급: 김효길(경북체고)  
웰터급: 이동훈(영천고)  
미들급: 권경록(영천고)  
헤비급: 장진수(문경고)

### ▲대 학 부

핀급: 김교철(영진전문대)  
플라이급: 서보훈(한국체대)  
밴텀급: 서덕수(한국체대)  
페더급: 김 성훈(한국체대)  
라이트급: 한동호(상지전문대)  
웰터급: 서정호(영진전문대)

미들급: 이성훈(한국체대)  
헤비급: 서정규(경원대)

### ▲일 반 부

핀급: 장두경(안강체)  
플라이급: 최규식(포항)  
밴텀급: 남성길(청호체)  
페더급: 김용만(상무)  
라이트급: 김홍철(경산시청)  
웰터급: 이창건(경산시청)  
미들급: 성필용(청춘체)  
헤비급: 이진원(경산시청)

## 제25회 교육감기 초, 중, 고 단체대항 대회

제25회 경북 교육감기 초, 중, 고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7월 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초등부 91명, 중등부 66명, 고등부 43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기가 어느 대회보다 뜨거웠다.

신상식에서는 경기력 향상위 원회에서 부별로 우승팀 30만원, 준우승팀 20만원, 3위 1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초 등 부

1위: 구미형곡국민학교  
2위: 의성도리원국민학교  
3위: 구미상모국민학교  
감투상: 칠곡 동명동부국민학교  
장려상: 성산국민학교  
아포국민학교  
최우수선수상: 김대홍(형곡국



# 태권도 소식

민학교)

코치지도상 : 문종국(형곡국·선인체육관장)

## ▲ 중 등 부

1위 : 구미 금오중학교

2위 : 의성 봉양중학교

3위 : 영천 영천중학교

감투상 : 상주 낙운중학교

장려상 : 영덕 영해중학교

점촌 점촌중학교

최우수선수상 : 이상학(금오중학교)

코치지도상 : 김영만(금오중·용마체육관장)

## ▲ 고 등 부

1위 : 영천 영천고

2위 : 경주 신라공고

3위 : 의성 안계중고

감투상 : 문경 문경고

장려상 : 영덕 영해고

최우수선수상 : 정창욱(영천고등학교)

코치지도상 : 이 진(신라공고교사)

## 제4회 경북도지사기 시. 군 단체대항 대회

제4회 경북도지사기 시. 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8월 6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중등부 7개 팀 40명, 고등부 6개팀 35명, 대학부 2개팀 13명 일반부 4개팀 23명 등 총 19개팀 11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방식은 대학부가 개인전, 중, 고 일반부가 5명단체전으로 열렸다.

이날 예조해 상임부회장은 대회사에서 성숙단계에 있는 이대회를 시. 군 선수단 여러분이 관심과 선전으로 완숙단계로 가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경기력 향상위 원회에서 부별로 우승 : 30만원 준우승 : 20만원 3위 : 10만원씩 상금을 지급하였다.

출전한 각팀의 종합순위는 다



음과 같다.

(종합순위)

- 1위: 영천시 2위: 경산시
- 3위: 의성군 감투: 포항시
- 장려: 영주시

(부별순위)

- ▲중등부 1위: 포항시  
2위: 영천시  
3위: 영주시
- ▲고등부 1위: 의성군  
2위: 문경군  
3위: 영천시
- ▲대학부 1위: 대구대  
2위: 상주산업대
- ▲일반부 1위: 경산시  
2위: 영천시  
3위: 경주군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 대학태권도연맹

태권도지  
편집위원에  
지병윤씨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그동안 공식으로 있던 계간 태권도 편집위원에 지병윤 연맹 사무국장을 위촉했다.

- 지병윤씨 약력
- 1957년생
- 한국체육대학 사회체육대학원 재학
- 현 대학연맹 사무국장

# 위너 스포츠 상사 (WINNER SPORTS)

☆세계 태권도 연맹 공인 업체  
OFFICIALLY RECOGNIZED BY WTF.

☆대한 태권도 협회 공인 업체  
OFFICIALLY RECOGNIZED BY KTA.

본사: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1동 116-11

양촌 빌딩 101호

전화: (032) 421-3395, 422-3395

FAX: (032) 434-2345

### 취급품목

공인용품: ①머리보호대 ②팔, 다리보호대  
③남, 여 살보대 ④몸통호구

기 타: 도복, 경기용 매트, 타겟, 여자 가슴보호대, 태권화, 태권장갑, 단검 등……



세계태권도연맹  
공인마크



대한태권도협회  
공인마크

**WINNER**

위너스포츠 상사  
상 표

# 태권도 소식

## 국기원

### 품, 단증(5단 이하) 국기원장·회원국협회장 공동 명의 발급

국기원은 9월 1일부터 그동안 국기원장 명의로 발급하던 품, 단증을 회원국협회장과 국기원장 공동명의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5단 이하의 승품단 심사 업무를 각국 협회에 위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6단 이상 고단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국기원장의 명의로 발급된다.

### 제15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수료식

15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이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어 7.11(토) 10:30에 국기원 경기장에서 수료식이 거행되어 97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 92년도 1차 3급 사회(생활)체육지도자교육 실시

국기원은 7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3급 사회(생활)체육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공인자격부여로 자결향상도모, 국민체육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총 91명이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다.

연수교과목은 교양부문이 국사, 국민윤리, 건강생활체조, 체육일반은 체육학개론,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레이션론, 체육행정론, 체력측정 및 평



## 세계태권도연맹

### 김운용총재, IOC부위원장으로 피선

김운용(金雲龍·60) 세계태권도연맹총재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이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IOC 집행위원인 김부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리세사 소피아호텔에서 열린 IOC총회 마지막날 부위원장 선거에서 일본의 이가야 위원을 표결 끝에 54:28로 누르고 4년 임기의 새 부위원장이 됐다.

이로써 김위원은 앞으로 IOC 총회는 물론 위원장단회의 집행위원회 등 모든 IOC관계회의에 참여하게 됐으며 현재 맡고 있는 TV분과위원장 자리도 지속하게 돼 IOC내의 실력자로 등장하게 됐다.

더구나 김위원은 세계태권도



연맹(WTF)총재와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 회장 등을 맡고 있어 세계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은 물론 한국스포츠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IOC부위원장은 모두 4명인데 김위원의 부위원장 선임은 아이보리코스트의 케바·문다에 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이뤄졌다.

김운용위원은 지난 86년 10월 고인이 된 박종규위원의 후임으로 IOC위원에 선임됐고 이어 1년 11개월만인 88년 9월 초고속으로 집행위원이 됐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 일어 등 5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김위원은 88년 GAISF회장에도 선임돼 세계 스포츠계의 영향력있는 인물로 떠올랐다.

가, 구급 및 안전관리, 직장체육 대회모형, 특강으로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으로 총 50시간여에 걸친 교육이 실시되었다.

### 경희대에 태권도과학연구소 개설

태권도의 학문적 가치 및 기

술의 과학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될 태권도과학연구소가 1992년 9월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에 개설되었다.

태권도의 전문야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태권도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태권도과학 연구소는 앞으로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 등과 연계

된 연구를 통해 태권도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아래 주요 연구사업으로

- ▲ 태권도의 심오한 이론과 실기의 연구 및 조사
- ▲ 스포츠의 한분야로서 학문적 기틀 마련
- ▲ 태권도 개발에 수반되는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 태권도 소식



연구소장 김 경지

및 자료수집

▲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협력

제휴 및 정보교환

▲ 내,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의 위탁교육

▲ 조사 자료의 간행 및 연구지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초대 연구소장으로는 현재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인 김경지교수가 임명되었다.

## 위너 스포츠 상사 (WINNER SPORTS)

☆세계 태권도 연맹 공인 업체

OFFICIALLY RECOGNIZED BY WTF.

☆대한 태권도 협회 공인 업체

OFFICIALLY RECOGNIZED BY KTA.

본사 :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1동 116-11

양촌 빌딩 101호

전화 : (032) 421-3395, 422-3395

FAX : (032) 434-2345

### 취급품목

공인용품: ①머리보호대 ②팔, 다리보호대  
③남, 여 살보대 ④몸통호구

기 타: 도복, 경기용 매트, 타겟, 여자 가슴보호대, 태권화, 태권장갑, 단검 등.....



세계태권도연맹  
공인마크



대한태권도협회  
공인마크



위너스포츠 상사  
상 표

## 범기철씨, 태권무 공연

「92범기철 태권무공연-天과 地」가 지난 8월 28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두차례 공연이 있었다.

태권무 공연은 태권도 품새를 바탕으로 1부 「우리는 하나」, 2부는 범기철씨와 Keith A Johnston의 2인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3부는 출연진이 모두 출연한 태권무 「기쁨과 환희의 세계로」가 펼쳐졌다.

태권도 동작에 한국춤을 혼합한 태권무 공연은 그동안 태권도가 격투기로서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중에게 태권무가 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범기철씨(일본 동경학교 교사)가 태권무를 창안한 것은 1979년도.

1981년도와 1982년도에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바 있고 1983년도에 2월과 10월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두차례 태권무공연을 보였다.

또한 1984년도 5월에는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현대무용제에 참가해 태권무를 공연하며 태권무를 알리는데 노력, 1986년도에는 범기철씨가 지도해온 은광여고 태권도부의 태권무가 서울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개막식공개행사로 채택되어 인기를 끌었다.

범기철씨는 태권무의 창안에 대해 「태권도를 생활화하고 영



원히 남기려면 예술로 승화시켜 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등을 배야 한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현 우고 훈련하기도 했다。」고 한다.

## 『제1회태권도 한마당』

- 기간: 1992. 12. 9. - 11
- 장소: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 주최: 대한태권도협회

### △경연부문

품새: 기존품새, 창작품새, 건강품새(창작)

격파: 위력격파(손·발)

응용격파(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종합격파)

### △참가자격: 유단(품)자

△부별구분: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참가신청: 1992. 10.20 - 11.10 17:00

대한태권도협회(420-4271 ~3)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제안서(창작및 건강품새, 종합격파시)

-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지부에서 배부

△대표자회의: 1992. 11.16 14:00

올림픽회관 1층 강당(대표자는 필히 참석)

△기타: 참가자전원에게 참가예달증정

부문별 우수, 감투, 미기, 장려, 인기상 시상

관중경품다수

# 태권가족



2 / 향원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대규모의 도장 운영하는 “김태은” 여성 태권도인

김석련 / 서울대성중교사

• 이글은 김석련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수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태은사범을 방문, 단전호흡을 태권도 지도에 접목시킨 그녀의 태권도 지도 철학을 듣고 정리한 글이다.

## 2500여명의 대지위에 세워진 대규모의 태권도장

7월말, 스포츠선교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본인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미국 사회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태은씨의 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녀가 수련생들에게 가르치는 태권도는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수원 태권도장」에 들어서면서 받은 느낌은 지금 까지 미국내에 있는 수십개의 태권도장을 방문했지만 내가 본 체육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체육관이라는 것이었다. 넓은 대지위에 우뚝선 체육관 건물. 나중에 안 일이지만 2500여명의 대지에 1000여평의 건물에 600여평이 태권도 수련 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00여평은 사무

실과 트레이닝실, 락커룸, 샤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태권도 사범과 사무직원들만 해도 20여명이 되며 관원은 약 1000여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내가 방문한 시간에 체육관내에서는 70여명의 미국인 성인 남녀가 도복을 입고 수련하고 있었다. 김태은 관장이 직접 지도 하고 있는 광경을 투명한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도장내에서의 수련중에는 절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내가 방문 했다는 사실도 운동이 끝날 때 쯤 메모가 전달되어 안내를 받게 되었다. 수련을 거의 다 마치고 마무리 직전에 나는 수련장내로 들어 갈 수 있었다.

김태은 관장은 사전에 전달한 메모로 많은 관원들 앞에서 나를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이라고 소개해 주어 관원들에게

환영 인사를 받기도 했다.

김태은씨는 키가 160cm도 채 안되어 보이는 가냘픈 여자 사범이었다. 익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 대하니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 하면 자존심 강한 미국인 수심명의 수련생들이 한국인 여자 태권도 사범의 구렁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그들은 관장의 지시대로 한국의 애국가를 우리말로 엄숙히 부르고 아리랑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의 방문을 환영 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합창하여 인사를 할 때는 나 자신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으며 더불어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단일 체육관 규모로는 참으로 대단 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관장은 직접 체육관 이곳 저곳을 안내하며 설명하여 주었다.

손과 발을 단련할 수 있는 단련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단련 기구들은 전 관원들이 1년에 한번씩 야외에서 실시하는 산천 수련시에 며칠간 합숙 하면서 직접 자신들의 고통과 약점과 질병 등을 깎아낸다는 마음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10여명의 사범들이 각기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 사무실마다 여러개의 컴퓨터와 많은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태은사범의 지도아래 태권도를 수련하는 미국인들.

약 이삼십분간 도장 내외를 둘러 보고는 응접실에 돌아와 김태은 관장과 마주 앉게 되었다.

### 태권도와 단전호흡의 원리를 접목한 태권도 지도 방법

그녀는 1946년 음력 1월 1일 생으로 만 46세였다. 경북 김천에서 설날 아침 제사도 멈춘채 첫 아들을 기대하던 부모님의 실망을 안고 태어났다고 한다.

김관장은 그 때만해도 여자가 감히 태권도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던 시절에 삼촌들이 하는 태권도를 보며 발길질을 흉내 내기 시작한 것이 태권도 수련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어느덧 삼촌들과 함께 도복을 입고 부모의 반대 속에서도 그녀는 수련을 계속해 갔다.

이미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어느날 시주온 한 스님을 만나게 되어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그 스님의 암자로 찾아가서 단전 호흡과 함께 무술을 연마하게 된 것이 수년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968년 그녀는 당시 22세의 젊은 나이로 도미. 처음에는 동부에서 오랜 동안 태권도 사범 생활을 하다가 뜻이 있어 산 좋고 물 좋은 캘리포니아로 옮겨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밀피다스라는 지역은 최근에 미국 T·V 방송국이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즉 범죄가 가장 적고 기후가 좋으며 공기가 맑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태권도에 대한 가치를



▲단전호흡을 집중시켜 태권도를 지도하는 김태은 사범.

이렇게 설명 하였다. 태권도는 공격과 방어 동작의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무예의 본질인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양된 정신으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함을 채워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道의 차원에 접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길러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태권도를 전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권도의 모든 공격 동작을 수련 할 때는 모든 수련생이 하나같이 몸과 마음을 하나되게 하여 정신을 집중시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수비 동작은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신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곳에 훨씬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선과 모략과 미움과 싸움이 시작 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인 의식주도 아주 중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며칠 정도는 우리가 먹지 않고도 입지 않고도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호흡은 단 하루만 하지 않고도 아니 단 1분간만 호흡을 하지 않고 견딜려고 해도 답답해서 죽을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이세상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공기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 마시는가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였다. 이는 단전 호흡을 의미 하는 것이였다.

쉽게 말하자면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호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였다. 따라서 힘과 기는 호흡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태권도 사범들은 알고 익혀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였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이는 동작이나 기술을 발전 시켜왔으나 앞으로 멀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무예의 진정한 정신적인 가치성을 새롭게 발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점들을 구체화 해서 교육 발전 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에디슨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은 전기를 발견 하기까지 미친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자신의 끈질긴 노력과 집착으로 전 인류에

게 어둠을 밝혀주는 전기를 발견하지 않았던가.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썩은 사과를 보고 발견한 만유인력이나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 등이 다 이미 존재해 있는 사물이나 학문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측면에서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태권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장점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서 계승 발전시켜야 끝없는 태권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태권도 인들은 자신을 위한 삶 보다는 태권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태권도와 더불어 자신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김사범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고 자신의 일에 항상 충실하고 실패를 거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임해야 하며 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사꾼이 만약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을 거둘려고 한다면 모두가 비웃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식한 농부라 할지라도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내 땀 흘리면서 가을이 가까워 오면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추수 할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성공하게 사소한 이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다면 황금알은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대한 바위속에서 자라난 야생화를 보았는지요. 시골길의 아스팔트 사이로 피어난 잡초들을 보았는지요. 비록 고사리 같은 어린 아이의 손으로도 뽑을

수 있는 야생화나 잡초들이지만 바위와 아스팔트 사이를 뚫고 솟아 오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태권도의 무예정신의 이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누누히 강조 하였다.

그녀는 태권도인으로 또한 한국인으로 분명 미국에서 성공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의 경력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은 횟수의 미국 T.V에 출연(백수십회) 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가장 존경 받는 인사에게 주는 행운의 열쇠를 받은 바 있으며 자신의 태권도 제자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으로 마약 퇴치운동을 벌여 백악관에 초청되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더불어 미국 대통령에게 도복을 입게 하여 마약 퇴치는 태권도로 격파해야한다고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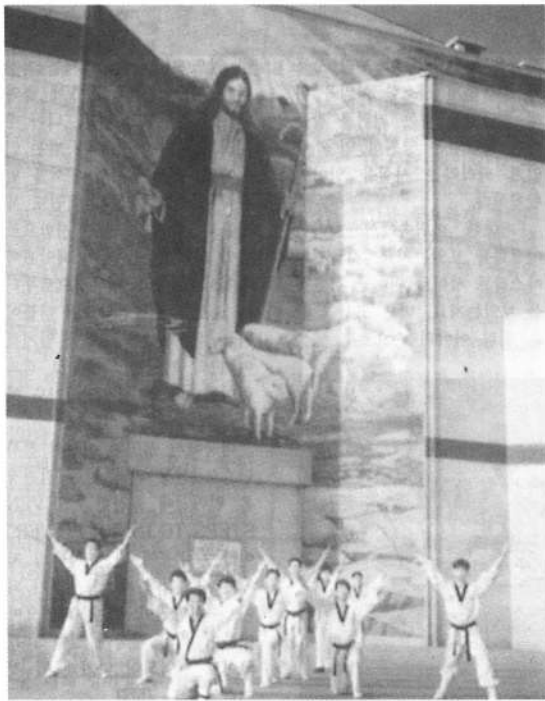
미국에서 성공한 여성의 한사람으로 선정 된바 있는 김관장은 얼마전에 출간한 「SEVEN STEPS TO INNER POWER」이라는 내공에 관한 자신의 저서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십만권이 판매 되었으며 더불어 세계 각국에 걸쳐 16개국어로 번역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태권도**



# '92바르셀로나 올림픽 현장에 태권도 선교



김희삼  
(수원 다윗체육관 관장)



태권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88년도 서울올림픽 기간동안 태권도시범을 통해 세계각국에서 물려온 선수, 임원, 응원단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주관해서 큰 호응을 얻었던 세계태권도선교회(총재:이태희, 회장:김희공)에서는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겨냥해 단기태권도선교시범단을 파송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주최한 일본 및 대만 선교대회에 서울지회(지회장:김희도선교체육관관장)와 대전지회(지회장:홍병진 왕호체육관관장)와 1, 2차로 나눠 파송되었고 서울지회 B팀이 소련에 파송되었으며 수원지회(지회장:김희삼 다윗체육관관장)가 올림픽선교단으로 파송되어 단기태권도 선교

사역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올림픽태권도선교단은 단장:김희공목사(7단) 감독:김희삼 집사(6단) 단원:이호열(4단), 김희도집사(4단), 조효종(4단), 한만희(3단), 전승민(3단), 오인석(2단) 등 8명이고 협력단원으로는 이상만목사, 현종서목사, 이성무목사, 김민수목사(3단), 강성근집사(6단), 석종훈 김영진 원석운 전종훈 등 9명으로 총17명이 팀을 이루었다.

선교단은 8월2일부터 8월8일까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임원 자원봉사자 및 관광객에게 태권도시범을 통해 선교활동을 벌였다. 몬주익 주경기장 앞에서는 8백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난도 기술시범과 격파시범으로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몬주익 주경기장 성화대 밑에서도 1천여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같은 방법의 시범을 보여 각국의 관광객으로부터 사진촬영과 싸인 공세로 시달리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 마드리드 포레호 시립운동장 테니스경기장에서는 1천 2백명의 관중이 경기장 관중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범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림픽태권도선교단은 스페인에서의 태권도 시범을 마치고 이어 9일과 10일까지는 스위스 주리히, 11일은 스위스 바젤과 이탈리아 밀라노, 12-13일까지는 독일과 푸랑크푸르크, 14



일은 덴마크 코펜하겐, 15-16일은 노르웨이 오슬로, 17일은 스웨덴 스톡홀름, 18일은 독일의 함부르크, 19-21일까지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활동으로 20일간의 모든 일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8월 22일 귀국했다.

올림픽 선교 시범단은 총 25차의 시범을 했는데 하루에 2-3회, 맑을 때에는 4회까지도 시범을 보이며 태권도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며 선교사업을 펼쳤다.

짧은 일정 속에서 여러나라와 많은 스케줄로 시범단원들은 피로가 겹치고 언어소화능력이 부족하여 태권도와의 밀접한 댄서지(간중)전달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안 수립과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어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재정적 뒷바침이 안돼 자비로 이루어진만큼 영영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된 스케줄에 피로가 겹쳐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태권도선교단 모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위해 태권도가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태권도 선교활동에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태권도선교에 사명과 관심 있는 크리스찬 태권도인들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서울본부)139-242 서울 노원구 중계 시영아파트 6단지 태릉순복음교회 丙 “세계태권도선교회”

TEL:977-5011(팩시컴용), 회장:974-0156 (수원지회)441-440 수원시 권선구 탐동 21-3 다윗체육관內 TEL:(0331) 291-9981, 292-3342

# 태권도 위생 품새에 관한 연구

(고려 품새를 중심으로)

## I. 서 론

우리나라의 고유 태권도는 '86아시아게임' 과 '88올림픽' 의 시범종목으로 출현되면서 세계인들에게 태권도라는 한국문화를 선보이고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사상속에 잔재되어 있는 태권도는 전통사상에서 말하는 수신이 신과 심의 교육의 의미를 말하듯 오늘날의 태권도 수련 역시 신(몸)의 발달과 심(마음)의 발달을 동시에 피해야할 것이지만 스포츠태권도의 급성장으로 동적 운동은 발달되었으나 정중운동(靜中寓動)의 정적 운동의 부분이 등한시 되어 아직 스포츠태권도와 무도태권도의 상호 갈등은 이렇다할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고종 32년(1895) 2월 2일 전국민에게 내린 교육조서로 교육의 실체는 덕육, 지육, 체육에 있다 하여 근대적 교육의 삼대강령을 지적인 1)것을 미루어 체육의 기본 개념에는 근골을 고건(固健)케 하여 건장무병한다는 보건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포함되어 있듯이 한국 고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태권도의 수련이 이 같은 요소를 해결해 왔고 오늘날에 이르러 각계각층에 전파되었으나 부분적 발전에 그쳤다고 본다.

이는 필자의 견해로 볼 때 태권도 품새 속에 동과 정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위생의 중요성을 잊은채 테크닉(technic)과 미적 감각에만 치중되 현대스포츠적 요구만을 생각한 발상으로 발전된, 태권도품새속에, 내, 외공의 연공으로 인한 신체를 양할 수 있는 위생품새를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원고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위생품새의 방안으로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학교단체와 유아 위주의 수련에

하 태 은

경희대 태권도학과  
단국대 대학원 졸업  
현 육군 대위로 군복무중

주1) 라현성 : 한국체육사, 청운출판사, 1953.pp 94-157 참조

『體養은 動作에 常이 有하여 勤勵하므로 主하고 情逸을 貪치 勿하여 苦難避치 勿하여 爾筋을 固케 하며 爾骨을 健케하여 康壯無病한 樂을 享受하라』

서 발전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부흥코저함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학문적 짧은 식견으로 중국원서와 동의보감 등의 고서를 통달함이 없이 논하는 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바이며, 하나의 시론에 불과함을 밝혀 둔다. 아울러 본 원고를 작성하는데 있어 충분한 선행연구자료가 미비하여 경희대학교 한의과의 예방의학연구원들과 태권도의 원로 관장님들의 조언을 통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여러 품새중에 그중 호흡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고려품새를 연구하였다. 또한 품새중에 고려품새를 선택한 이유는 고려품새연구시 여러 호흡법이 가미되기에 단순한 호흡법에 의해 진행되는 품새가 아닌 고려품새를 택하여 연구 했다.

## II. 태권도의 일반론

### 1. 태권도의 위생(衛生)성립론

먼저 태권도품새에 위생이라는 낱말을 쓴 이유를 주의하면 국어대사전에 “위생이란 건강의 보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힘쓰는일”<sup>2)</sup>이라고 쓰여있다. 위생의 뜻은 이렇하고 필자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이언적(李彦迪)(1491-1553)의 그의 <관서문답록(關西問答錄)>, 저서 가운데 약을 마셔 병을 고치는 것은 성인의 위생하는 도이다. 생명을 하늘에 그대로 맡기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3)라고 하여 병치료를 상기 시켰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사용한 위생이라는 한자 표현이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은 퇴계(退溪)(1501-1570)의 문헌에서 수학한 박운(朴雲)(1493-1562)이 『위생방(衛生方)』이란 의서를 편찬한 후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생각되

나 섭섭하게도 위생방은 남아있지않아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에 있어서는 명치13년(1880)경, 장여전제등(長興濟濟等)이 처음으로 위생이란 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300년이나 뒤져 있었음을 알 것이다. 4) 따라서 전통 태권도에 우리의 고유 낱말인 위생이란 표현이 타당하다고여겨 『태권도 위생 품새』라 하였다. 태권도의 역사적 출현은 맹목적인 생존과 보호라는 필요성에 의하여 수련되었다. 시대적 발달과 함께 건강이라는 가족과 개인의 삶을 위하여 전승의학과 태권도가 무슬로써 뿐 아니라 위생의 수단으로써 발전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에 관한 예방과 치료술로서의 연공이라는 과학적 입증이된 태권도저서가 미흡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태권도위생품새의 사상적 추찰로 알아보면 중국에서는 심(마음)이 체(몸)을 교화시킨다고 보았으나 우리나라는 몸과 마음이 하나며 체가 건강했을때 심을 교화시킬수 있다는 심신일원론을 내세웠고 보다 이런 논리를 체계화시킨 분이 율곡(栗谷)(1536-1584)에 의한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이겠다.

이기일원론은 주기파의 선구자인 서경덕(徐敬德)(1489-1546)의 우주본질로서의 기와 이를 논한 기가 천지만물과 인간의 형성으로 음과 양으로 된다는 설로써 같은 뜻을 품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서 천심이란 천체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본보기로 다루어지고 천인의 합과 내외가 서로 어울러서 단이 된다는 말(天人合發內外相符結而爲丹矣)이 계속되는데 소우주인 인간의 마음이 대우주와 일치되는 5) 설로 쓰이고 있다.(그림 1 참조) 위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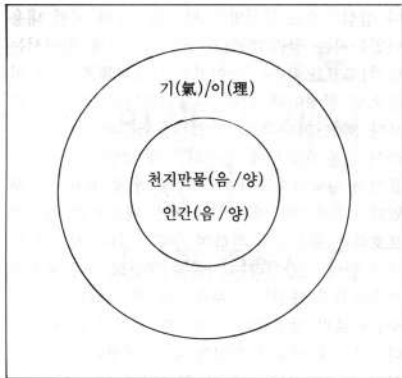
주2) 이희승 :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1, p.2763

주3) 이언적 : 회계집권 13, 관서문답록, 인환도형조

주4) 이진수 : 조선조주학과의 보건체육사상성립에 관한 고찰, 동아대스포츠과학연구론집 1집, 1983, p.12

주5) 이부영 : 동의보감에 나타난 심신관계,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정신의학, 1977, p.2





〈그림 1.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

태권도는 심신이 하나라는 사상을 갖고 품새를 수련하여 위생을 꾀했던 것이다.

## 2. 태권도신체사상론(Thought on Health of Taekwondo)

태권도의 수련은 자기 자신의 정신과 신체의 힘을 규칙적인 단련에 의해서 강하게 합성시키는 무도이다.<sup>6)</sup> 이러한 태권도는 한국인의 사상이 융합된 정신과 신체의 합일된 신체사상을 갖고 수련하여 고유의 위생술과 무술로서 실시되어 무도로서 발전되었다.

태권도는 우리의 독특한 한 사상을 중심으로 유, 불, 선 사교를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으므로 태권도의 정신 또한 복합된 한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올바른 인간육성을 조성시키기 위한 지, 덕, 체의 합일된 덕목을 지녔고, 천도에 입각한 무사도정신을 지녔으며, 한민족의 주체사상을 지녔다.<sup>7)</sup> 또한 태권도는 솔로씨의 기술적인

면과 예로씨의 혼을 실어 도로씨의 모든 이치를 터득하고자 함이 곧 태권도 수련의 길이라 볼 수 있겠다.

태권도정신은 이러한 본질속에서 신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일된 태권도 신체사상을 만들었는데, 태권도 신체사상이란 『한』 사상의 대표적인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담아 신과 심의 합일된 신체존중사상을 비롯한 불교에서의 원융합일사상(圓融合一思想)(열반에 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수련을 한 신체존중사상)이 나왔고 유교에서의 선비사상(의리를 중시하는 인간의 신체존중사상)등은 한일 사람 또는 신선 사람의 모든 대립모순을 융합통일하는 복합성과 유일성이라는 「한」의 변증법을 내세워 만상을 포괄하며 천지개벽의 원동력으로써 존재한다는 「한」의 철학적 심층구조의 문제가 태권도 수련에 접목되어 오늘날 태권도신체사상이라는 하나된 사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태권도 신체 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들을 근거로 동양의학에선, 음세력(Negative force)과 양세력(Positive force)의 존재로 음양균형(Equilibrium State of Eum and Yang)을 이루었을때 건강하고 음양불균형(Disequilibrium State of Eum and Yang)일 때는 질병을 얻는다 하여 한방의 이론을 전개해 천지대자연의 대우주(Macro-cosm)와 인체인 소우주(Micro-cosm)와의 균형된 화실서와 법칙이 추대됨으로 인체의 질병이 야기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를 통한 음, 양의 균형을 위하여 연공을 함으로써 태권도 신체사상 속에는 위생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 3. 태권도위생품새의 개념

품새란 상대방이 없이 혼자 태권도에 나오는 모

주6) 김 철 : 2000년대 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 태권도 연구논문 제1호, 1988, p.86

주7) 하태은 :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정신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91, 참조

든 발과 손의 기술을 이용한 공. 방의 이론에 맞도록 형식을 갖춰놓은 동작이다.8) 9) 10) 따라서, 품새를 연마함으로써 겨루기 기술의 향상은 물론 내. 외공의 연공 및 태권도정신을 함양하는데 역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품새를 연마 함은 곧 심신의 단련 및 위생에 힘쓰는 것이며 무술과 무도로써의 수련과 무예로써의 감각을 표출하는 완성된 전통 태권도품새를 연공하는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품새의 발전과 깊은 이해에 큰 관심을 갖고 11) 있었는지 모른다.

품새는 수세기 동안 여러 태권도 대가들에 의하여 창안되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다.1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립된 품새는 태권도 신체사상을 갖고 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극품새의 경우 태극의 의미는 우주구성의 최고 원리요 우주철학의 근본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동양 사상의 가장 심오한 세계관과 우주관, 인생관을 대표하는 철학사상이기도 하다. 이 태극사상은 후에 한국유학의 근본사상인 경 사상에 흘러 태권도사상에 담겨짐으로써 행동원리 또는 방법원리로서 중요시되었고, 조화된 인간상을 만든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13) 따라서 태극은 곧 근원과 형상 모두가 만물의 원리속에 포함되어 태권도신체사상을 드높이고 있다.

둘째, 유단자 품새는 명칭에 따른 시대적 사상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와 상징적 근원 등을 담은 품새로써 고도의 혼을 지니고 도의철학

을 지닌 행동철학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위생품새는 심신단련을 통한 내.외적 기의 운용으로 연공을 실시하여 위생을 꾀하는 것인데, 율곡에 의하면 『기가 약하더라도 잘 기를 수 있다면 장수할 수 있다. 기가 강하더라도 상하게 하면 조사를 면하기 어렵다.』14) 라고 하여 연공을 통한 혈액순환, 호흡작용 등의 기능을 위생할 것을 강조 했듯이 일찌기 태권도품새를 통한 기의 윤행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짐작은 태권도 역사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렇듯 품새는 태권도신체사상을 근거로 단순한 공방의 기술적 응용뿐 아니라 심신의 연공을 하는 종합예술인 것이다.

#### 4. 현대 태권도품새의 문제점

꾸준한 발전과 노력을 더해 오면서 품새는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중 현대 품새의 미적창출, 테크닉(Technic) 등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데 충분했으며 스포츠태권도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보아 진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도 우리가 빼놓은 부분이 있었으니, 다름이 아닌 품새를 통한 생리적현상을 치유하는 문제점으로 위생품새의 정체현상이라 본다.

태권도위생품새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품새에 기의 윤행을 통한 기공을 실시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3000년경부터 기에 관한 관심을 갖고 기공에 힘써 오늘날에는 모든 질병을 기공을

주8) 김경지의 2명 : 태권도의 이론과 실제, 형성출판사, 1986, p.93. 참조

주9) 육군사관학교 : 무도교본, 형성출판사, 1982, p.99. 참조

주10) 최홍희 : 태권도 지침 정연사, 1966, p.173. 참조

주11) Whang Kee : Dang Soo Do, Sung Moon Sa, 1977, p.378

주12) 상계서, p.173

주13) 하태은 : 유학의 전통사상과 태권도정신에 관한 소고, 태권도계간지, 제77호, 1991, p.81

주14) 이 이 : 율곡전서십회6전서3의약책

통하여 치료하고 예방하고 있으며, 과학적 의학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작금의 실척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중국에 못지 않게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양생술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 퇴계의 『활인심(活人心)』<sup>15)</sup>과 허준의 『동의보감』 등이 근거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품새 수련 시 보건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역시 태권도품새편에 적고 있는 사실이면서 또 자세한 방법론을 제시 못 한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출생과 더불어 나이가 들(가령)에 따라 노화가 시작된다.<sup>16)</sup> 노화현상은 40대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50대까지는 경미하여 생리적인 노화현상 정도로 취급되고 있으나 60-70세에 가서는 문화가 증가되어 노화현상과 질병과의 구분이 명확치 않을 수 있게 되고 70세 이후에는 노화 자체로서도 생체에 우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고령에서도 노화에 의하여 장기의 기능이 성숙기의 반감 정도로 감화된다. 노화는 40세 이후 부터 장기의 생리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따라서 각 장기는 적응력, 저항력, 회복력 등이 떨어지고 전체의 "Homeostasis"<sup>17)</sup>가 감화된다. 따라서 사람은 각기 시기와 양상은 다르지만 발육, 성장, 성숙, 노화의 과정을 밟는 법이므로 유아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실시할 수 있는 기공의 연공을 이용한 태권도 위생품새에 보급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70년대말부터 기의 행공을 통한 무공을 수련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들의 기공요법은 외공면과 내공면을 생각과 호흡조절을 통하여 치료하는 3가지 요법이 있는데 외공면은 동물의 동작 표현 요법으로 호랑이는 위, 사슴은 간질환, 곰은 신장, 새와 원숭이는 폐와 비장료로서 수련되고 있으며, 내공면은 이 동물들의 동작에 기질을 포함한 치료요법으로 수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운동 종목 중 이와 비슷한 무술이 태권도가 아닌가 생각되며 중국에서 무공이 각종 질병에 예방의학 치료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우리도 전통 무공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선 현대 태권도품새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꼭 치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위주의 태권도에서 무리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관절과 근육의 상해를 줄이며 노소가 다 수련 할 수 있는 태권도 수련의 Program 발굴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강이라는 문제를 위주로 해결 방안으로 연구되었다.

### Ⅲ. 기와 경락의 일반론

#### 1. 기(氣)의 특성

태권도위생품새의 가장 중요한 기공 운행에 관하여 알려면 먼저 기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주15) 활인심(活人心)이란 책은 중국 명대의 주관(朱棺)(1378-1448)이 저술한 도연류의 의서로서 이 책이 한국에 도입된 년대는 태종말기 아니면 세종초라고 추측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에 전입되어 가정 20년(1541)정판되었다. -이희대, 퇴계선생의 수적 활인심방퇴계학보, 1976, p.186

주16) 심동원: 노화과정(노화의 생리), 대한의학회지, 제32권 제1호, 1989, p.8

\* 경(敬)은 심의 주재이며 심은 일신의 주재였기에 양생은 퇴계에게 질병을 대처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퇴계가 실행한 양생법은 용천혈마찰법(湧天穴摩擦法)과 활인심(活人心)에서 보이는 육자기결(六字氣訣)에 의한 조기(調氣) 그리고 도인(導引), 주자(朱子)의 조식감(調息箴)에서 배운 조식일상(調息日常)의 신체운동(身體運動, 무호(投壺) 등이 있다. (필자주)

주17) 강무희: 신평출판사, 1983, 개정 2판 17-1 참조

먼저 우리 인체의 4대 구성요소는 정, 신, 기, 혈로 대별되며 18) 이중 정, 기, 신은 고래로 삼보라 일컬어 19) 태권도 수련에 중요시되어 왔다.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허(煉精化氣 煉氣化神 煉神還虛)”의 뜻처럼 정을 단련하면 기로 변하며, 기를 단련하면 신으로 변하고 신을 단련하여 도의 경지에 20) 이르듯 정 기 신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로서, 정기가 충만한 사람은 신의 기능도 왕성하며 반대로, 신이 왕성하지 못한 사람은 정기가 부족한 탓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태권도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살아있는 한 개인의 내재적 정, 기, 신의 상호관계를 동의보감 21) 22)에 보면

“기자신지조 정내기지지자 기자정신근체야(氣者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精神根滯也)”라 하여 기의 소산이 정이요 정 의 소산이 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뜻은 기 하나만의 존재가 아닌 제2차적 생리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이 2차적 요소의 운행을 원활하게 돕는 것이 바로 위생품새의 기능인 것이다. 모든 인체의 기는 원기에서 분화되어 호흡과 음식섭취 및 외부환경의 변화와 기타 자극인자들이 원기손상의 원인적 요소들로서 원기는 인체에서 분화이전의 기로써 생명활동력의 원동력이며 같은 순위의 기들은 정기, 사기와 비

교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가) 원기(元氣): 천(天)과 수곡(水穀)에서 얻어지는 기로써 인체생명을 충실하게 하여 준다.

나) 정기(正氣): 정풍(正風)이며 과부족이 없어 원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기이다.

다) 사기(邪氣): 허사적풍(虛邪賊風)이니 사람의 원기를 상하게 한다. 따라서 기는 본래 무형이나 모여서 형(形)을 이루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기는 질량을 갖지 않고 존재나 질량을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 또는 실체같이 여겨진다.

## 2. 기의 정의

한의학에서는 기(ENERGY)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사시계절의 변화와 지역적 차이, 즉 천기와 지기도 의학적 범주에서 인체와 불가분의 것으로 언급되었다. “夫道者上知天文下知地理中知人事 可以常久 此之謂也” 그러나 이러한 운기적 기의 개념은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 되어져서 동의보감 이후, 근래의 저서에서는 인체의 근본이 되는 진기(眞氣)를 생명현상의 기본 에너지로 설정하고 있다. 24) 25) 26)

진기는 경기(經氣), 오장원기(五藏元氣)의 기, 원기(Basic Energy)라 하여 인체의 모든 기는 진기에서 갈라지는 것이라 보았다. 기에는 진기, 원기, 선천지기(Congenital Energy), 양기(陽

주18)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성보사, 1983, p.25

주19) 김상효: 도의신경신과학, 행림사, 1984, p.49

주20) 공원작편: 정신황체내경, 동양의학연구원, 1981, pp. 11-167 참조

주21) 동의보감은 허준(조선왕조선조제의 명)에 의하여 정유재란이 끝나고 내장방서(內藏方書) 500권을 참고자료로 만든 의서(필자주)

주22) 허준: 동의보감, 남사당, 1989, p.86

주23) 馬元壽, 張隱, 合編: 黃帝內經, 中國, 태연국공사, 1977, p.434 “氣者有眞氣, 正氣, 邪氣...眞氣者 所受于天與穀起”非而充身也 邪氣者 虛風賊傷人也 其中人也 深不能自法”

주24) 이부영: 동양의 기개념에 관한 고찰, 서울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신경정신의학, 1978, p.44

주25) 이동행: 동의체계내과학, 서울, 민서 1986, p.23

주26) 김신재: 동양의학개론, 서울, 동양의학교육원출판부, 1981, p.69

氣). 음기(陰氣), 위기(衛氣), 영기(榮氣), 종기(宗氣), 중기(中氣), 원음 원양기(元陰 元陽氣) 등이 있다. 이러한 기들은 신, 정을 함창(涵暢)(수양하여 발달시킴) 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가 수련을 통하여 조화 되어져야 한다. 이에 합당한 기는 원기(Basic Energy)이다. 27)

원기란 출생전부터 지니고 나오는 선천원기와 호흡을 통하여 얻어지는 천공기, 그리고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모든 생명활동의 원동력이다. 원기는 또한 화되어지는 모든 기에 영향을 주고, 생활에서 수반되는 모든 악요소들에 의하여 손상되어진다.

이러한 원기는 진기, 경기라 하여 선천지원기(先天之原氣)와 후천 호흡 수곡지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원기는 신(腎)(Kidney(영문 Gate Of Life) 포괄)에서 발원하고 단전(下氣海)에 장(藏)하며 삼초(三焦)의 도를 빌어서(共) 등 일초 기관조직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신 생화동력의 원천으로서 태권도위생품제 연공(練功)시 꼭 필요 운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기의 분류

기는 경락과 함께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그 본의는 하나라 할 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8) 기의 개념 내용이 반드시 일정하지 않으므로 개념상의 분류와 분포상황의 작용에 따른 분류, 기타 분류 등으로 나누어 보겠다.

#### 1) 개념상의 분류

인체내에 유통하는 영양이 많은 정미(精微)물

질로서 수곡지기 등이 있고, 장부(臟腑)의 활동능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오장지기, 육부지기, 경맥지기 등이 있으며 임상상 말하는 기는 장부의 기능 실조로 야기되는 병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위기부항(胃氣不降) 간기역위(肝氣犯胃)등이다. 29)

#### 2) 분포상황과 작용에 따른 분류

진기는 원기이며 출생전 선천의 품수(Congenital Reception)의 선천지기(Congenital Energy)와 출생후의 호흡, 음식(Respiration and Ndurishment)으로부터 얻은 후천지기(Acquired Energy)로 나뉘며, 양분에 있으면 양기(또는 원양(Basic Yang)), 음기에 있으면 음기(또는 원음(Basic Eum)이라 하고)이라 한다. 또한 인체의 장기조직(Visceras Bowels Tissue)의 활동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表)에 있으면 위기, 내에 있으면 영기라 하고, 혼에 있으면 충기, 위에 있으면 위기, 상초(上焦)의 중기, 중초의 중기, 하초의 원음원양의 기 30)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기타 분류

사기는 육음(六淫)과 역려지기(疫癘之氣)등 외부에서 침입하는 발병요인 또는 인체의 정기에 상대되는 각종 질병의 발병원인과 병리적 손상 등을 뜻하고 약기는 병사 및 병리적산물 31) 이다.

#### 경락(經絡)의 정의

경락이란 몸안에서 기혈의 순환하는 통로로서 경맥과 락맥으로 이루어진다. 곧게 가는 줄기를 경맥이라 하고 경맥에서 갈라져 나와 온몸 각 부위를 그물처럼 엮은 가지를 락맥이라 한다. 기혈

주27) 김영훈: 청감의감, 서울, 성보사, 1984, p.37 “凡動者 皆屬火 化火一妄行 元氣受傷”

주28) 藤原知의 1명: 경락의 대발견, 서울, 일월서각, 1986, p.32

주29) 이형구: 동의폐계내과학(같은책), p.23

주30) 상계서 pp.23-24

주31) 상계서 p.27

이 통하는 통로로서 온 몸에 기혈을 공급하여 몸을 영양하며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 주는 능력을 수행 한다. 병적인 자의 통로로, 병적현상을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경락이 장애되면 병이 생기는데 이 때 경락에 있는 침혈을 자극하면 병이 낫는다. (1) 『영추』 경맥편(經脈篇)에 기록하기를 “경락은 생사를 결정하고 온갖 병을 처리하며 허와 실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동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생리와 병리에 대한 해석과 진단, 치료에 경락이론을 응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침구학에서 침을 이용한 자극으로 기의 균형을 잡아주지만 태권도위생품새의 연공은 이러한 불균형된 기의 운행을 원활히 하여 보전케 한다.

따라서 (3) 경락학론은 태권도위생품새 이론중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음양 오행 장부 영위기혈과 더불어 공동으로 태권도위생품새의 기본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태권도위생품새 이론에 있어서 인간은 일개정리체로서 체내와 체외 장부사이를 전부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상호제약, 상호협조로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며 평위(Equilibrium)와 협조(Cooperation)의 기본 결구를 보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경락(Gyeong Nag, Meridians, Acupuncture Meridians dek) 32)이다.

전승 의학에서는 ‘기’ 또는 ‘영. 위’ 33)가 순행하는 경로를 경락이라 부르며, 이것을 일조의 순환로 보고 있다. 각 장부와 신체부위를 \* ‘영’

에 의하여 자양(몸에 영양이 됨), \*\* ‘위’ 에 의하여 보호하면서, 그것은 전신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전신을 돌고 있는 경락은 장기와 장기, 장기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연결하여 달리고, 또한 장기와 체표(體表), 사지(四肢) 말단(末端)과 체간부(體幹部)를 연결하는 경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락은 생체 기능의 유기적 통일을 보증하는 전신성 계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락의 종류에는 경맥, 락맥, 손맥, 경근, 경수 등의 구별이 있으며, 정확하게는 이것들을 총칭해서 경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락을 단지 경맥의 동의어로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경맥이란, 경락 안에서 줄기(幹)를 이루는 굵은 주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출기의 정경맥(正經脈)과 8출기의 기경맥(奇經脈)이 바로 이것이다. 기경 8맥의 명명을 보면 독맥(督脈), 임맥(任脈), 충맥(衝脈), 대맥(帶脈), 양교(陽橋), 음교(陰橋), 음유(陰維), 양유(陽維)가 있다.

여기서 독맥이란 목등의 정중선을 순행하여 전신의 양경을 총독하고 임맥은 목, 가슴, 배의 정중선을 순행하여 전신의 음경을 다 담당하므로 경락의 기능을 조절하고 감독하는 줄기라고 보아진다. 충맥이란 포궁(자궁)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따라 올라간다. 체표면을 지나가는 가지는 포궁에서부터 아래 배로 나와 족소음신경과 함께 배꼽 옆을 지나 올라가서 가슴에 가서 흠어진 다음 다시

\* 역려지기(疫瀼之氣): 돌림을 일으키는 기로써 전염성질병을 통틀어 이른 말(필자주)

주32) 최용태, 이주호: 정선침구학, 서울, 행림출판사, 1974. p.45

주33) 경맥(經脈)(=혈맥)속을 순행하는 것이 영(혈)이고 맥외를 순행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며, 기와 혈은 절대적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실체가 있는 혈에게서 그 물질적 기초를 받아서 비로소 작용을 발휘하며, 한편 혈은 기의 보호를 받아 힘을 얻어 비로소 맥을 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영(營): 혈액 속으로 온몸을 순환하면서 영양작용을 하는 정미로운 물질을 말한다.

\*\* 위(衛): 밖으로부터 사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몸을 보호하는 살갗의 기능을 이르는 말 (필자주)

올라가 목구멍을 지나 입술에 퍼진다. 총맥은 5장 6부의 해(海)이며 온몸의 기혈을 조절한다. 대맥이란 소느골 밑에 옆구리의 장문혈부위에서 시작하여 허리를 한바퀴 돌면서 음양의 여러경을 다 묶는다. 양교, 음교는 발뒤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맥은 다 발뒤축의 양쪽에서 시작하여 한가닥을 안쪽으로부터 올라가는 이것을 양교라 하고 바깥쪽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음교라 한다. 이 두맥은 인체의 운동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두 눈 안구석에 가서 눈을 뜨고 감는 것을 주관한다.

음유, 양유는 모든 음경을 엮어 매는 것을 음유라하고 모든 양유를 엮어 매는 것을 양유라 한다. 경락은 경맥을 상호 연결하여 교통하는 보다 가는 맥이며, 손락은 더욱 가는 락맥이고, 말단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조직에 빈틈 없이 분포되어 있다. 경근은 사지의 말단에서 시작하여 사지의 관절을 돌아 흉배부에 분포하고 두신부에서 끝나는 12경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경맥과는 다르고 오직 체표와 근육을 운행하며 내장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또한 직접 침구를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이라는 것은 12개의 정경맥과 34) 2개의 특별한 기경맥, 독맥과 임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각각 일정한 수가 배치되어 있는 '기의 문'이며, 각 장기의 기능 상태가 거기에 잘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5) (그림 2 참조)

## Ⅳ. 태권도위생품새의 일반원리

### 1. 위생 품새를 통한 연공원리

소위 "내공(內功)"이란 기공학(氣功學) 명사로써 심신을 단련하고 정. 기. 신을 강화 조절하는 36) 본질상 무술의 기공을 말한다. 37) 기공은 의료기술의 일환으로 호흡을 이용한 신체단련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으로써 기공의 원리를 대뇌의 생리기능에 반영되어 뇌파의 활동(Q파, q파)을 증진 시키며 대뇌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호흡수를 저하시키고, 위의 유동 운동을 증가시켜 위액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하강시키며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한다. 38) 따라서 기공이란 조신, 조식, 조심을 가르키는데 정신과 형체가 조화롭고 음양이 합평한 범술로써 호흡조절의 단련을 의미한다. 이것을 연공이라 하며 내. 외공을 합한 뜻으로 쓴다.

태권도위생품새는 연공을 통하여 인간의 단련으로 외공을 쌓고 내공으로 인심의 정. 기. 신. 역. 공을 단련하게 됨이 위생품새의 연공이다. 발달된 하나의 문명은 생과 사에 대하여, 생명 본질의 의의와 사색에 대하여 반드시 인체와 자연과 인류 정신을 초월한 철학적 영역에 진입했다. 위생 품새는 이러한 철학적 영역을 가져 근육과 골을 단련하고, 의형을 견고하게 하여 하반 경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이며, 내공 방법으로 중요시 되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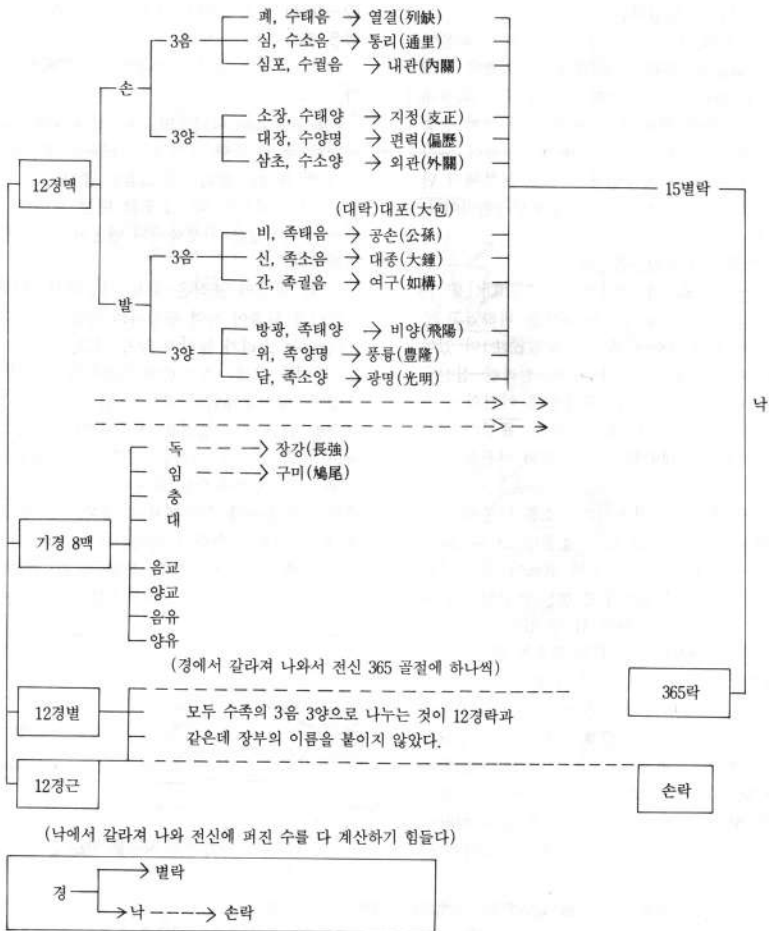
주34) 정경맥(正經脈)이란 정상상태에 있어서의 기의 순행로이며, 이것에 반해서 기경맥(奇經脈)이란 기가 과잉된 이상 상태에 있어서의 방수로(放水路)와 같은 것이다. 순행하는 경로에 의해 순행 순서가 일정한데, 수태음계경(手太陰肺經) (1)에서 시작하여 제 1표의 1-2-3...6-7로 차례로 돌고 족림음간경(足厥陰肝經) (12)에서 그 순환이 한번 끝난다. 이것이 경맥(經脈)의 유주(流注)이며 태권도위생품새에서 운용해야 할 중요한 기초 사항으로 되어 있다. -필자주-

주35) 藤元知의 1명 : 같은책 pp.18-24 참조

주36) 呂光榮 : 中國氣功辭典, 中國人民衛生出版社, 1989, p.99

주37) 葉文楠 : 中國氣木文化概論, 中國, 四川教育出版社, 1990, p.139

주38) 馬濟人 : 中國氣功學, 中國圖書刊行社, 1985, pp.67-80 참조



<그림 2 경맥, 기경, 별락, 경별, 경근 등의 순행 부위>



다. 이렇게 위생 품새는 연공을 통한 심사를 안정시키고, 단전을 납입하는 기를 흡수하여 진기를 머리에 올리며, 단전을 강화시키고, 다시 회음에 이르고, 회음으로부터 용천(湧泉)에 이르게 되고 후에 외릉(外陵)에서 단전에 이르며 후에 의식에 영역을 꼬리부터 협배(夾背)에 이르기 까지 상승하여 백회(百會)에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다시 얼굴로부터 내려가 목구멍에 이르고 복부에서 단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위생 품새의 연공원리이다.

## 2. 위생품새의 명상호흡원리

우리나라는 옛부터 선인들이 산수(山水)를 즐기며 명상호흡법을 실시하여 양생을 꾀하였고 중국도 이와 같이 심신 방송법(心身放松法)이 있어 양생을 꾀하여 왔다. 심신방송의 원리란 심신을 이완시키는 원리로서 39) 위생품새 이전의 근육에 이완을 요하고 정서(心)의 이완, 표정의 이완 호흡의 이완과 자세이완 등의 심신의 이완을 요하게 된다.

태권도위생품새의 연공시 노. 소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명상 호흡법으로써 조신. 조식. 조심의 40) 단계 이전에 취해야 할 원리라고 보아지며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 안정을 취하므로써 기의 운행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사람의 생명의 보존 및 연장시킬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다.

명상호흡법의 연공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상호흡법의 조신은 먼저 시선은 천정을 향해 바로 놓고 바닥은 모포 1장 정도로 냉기를 없애주며 턱은 가볍게 당기고 손바닥은 양 발의 제봉선 또는 바닥을 향해 가지런히 놓는다. 눈을 감고 양 발과 손등, 온 몸의 긴장을 풀고 허끝을 위턱부에 접촉시킨다. (그림 3) 배개의 높이는 사

람마다 틀리나 머리와 양 어깨의 간격 높이가 (2-4cm)가 적당하다. 또한 행공에 앞서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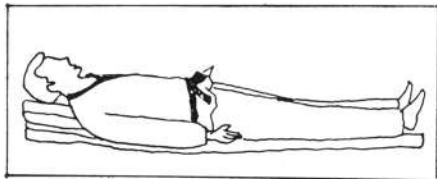
(1) 도복을 느슨하게, 띠 역시 느슨하게 착용한다.

(2) 화장실을 다녀오며, 공부시나 반복시는 피하는게 좋다. 또한 식사량은 70%가 적당하며 맵거나 찬 음식은 섭취하지 않음이 좋다.

(3) 너무 피로할 때, 초조할 때는 피한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은 위생품새의 연공시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명상의 조식은 코를 사용해서 흡(吸)과 호(呼)를 되풀이 하며 평상시의 리듬에 맞춰 가늘게(숨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하고, 균일하게(속도, 깊이를 같게), 부드럽게 조절한다. (그림 4)

셋째, 명상호흡법의 조심은 심신을 이완시키고 의수법 41) 으로 정신을 집중시킨다. 숨을 흡할 때는 몸의 부위에 의식을 집중시키고 호할 때는 '이완' 하고 마음속으로 외면서 그 부위를 늦춘다. 매회의 호흡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물 흐르듯이 몸을 이완시킨다. (그림 5) 위와 같이 양팔, 가슴, 배, 허리, 둔부, 대퇴, 발로 진행하여 온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시 혈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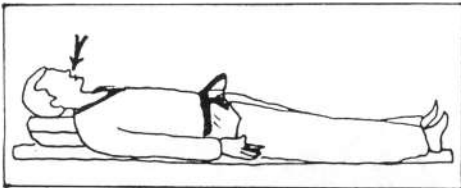


〈그림 3. 조신에서 자세를 바로 한다〉

주39) 王寅: 氣工外氣療法, 中國,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8, pp. 5-8 참조

주40) 조신(調身)-자세를 갖추는 것, 조식(調息)-호흡을 갖추는 것, 조심(調心)-마음을 갖추는 것-(필자주)

주41) 의수법(意守法): 신체 각 부위에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한가지 일 또는 좋은 일이나 풍경에 집중시키는 법 (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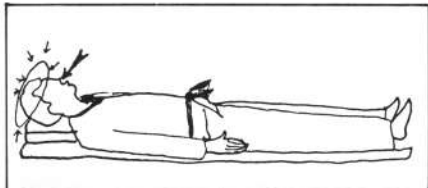
〈그림 4. 조식에서 호흡을 한다〉

경, 내장의 모든 부분을 이완시킨다. 또한 위생 명상호흡법행공은 피로회복에 매우 효과가 좋고 고혈압증, 신경쇠약, 변비, 불면증, 기타 만성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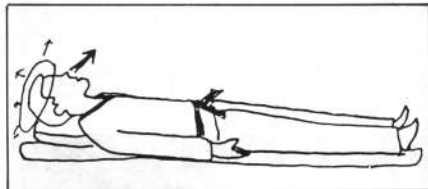
### 3. 위생품새의 도인원리

옛부터 우리의 선인들은 “심신일여(心身一如)”라 하여 심과 신을 하나로 조화유지 시켜야 정신과 육체적으로 참다운 건강을 유지 시킬 수 있었다. 42) 그러나 현대에 와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물질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빈곤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Stress)와 자율신경의 혹살로 자율신경이 깨져 정신과 육체의 갖가지 질병이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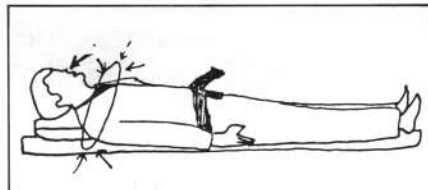
자율신경이란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에 의하여 조절이 가능하다고 현대과학으로 입증되었다. 우리 몸에 자율신경은 24시간 쉼새없이 움직이며 호흡, 소화기계, 신장, 혈관, 생식기 등 각종 내분비선에 각 기관기능을 흥분, 촉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자율신경을 조절한 단전호흡을 심신조화유지의 일환으로 도인(導引)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導)란 대자연의 기를 신체내로 끌어들이는 법을 말하고 인이란 근육의 굴신운동(屈身運動)을 뜻하며, 이 도인법은 모든 동작시 무념의 상태에서 모든 동작에 깊은 호흡을 실시하여 10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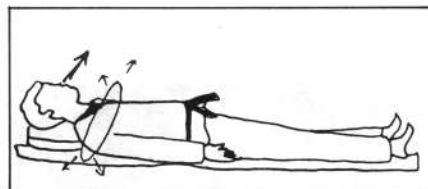
〈흡(吸)하면서 머리에 의식을 집중〉



〈호(呼)하면서 머리를 이완〉



〈흡하면서 어깨에 의식을 집중〉



〈호하면서 어깨를 이완〉

〈그림 5〉

을 좌우 교대로 실시하게 되는데 명상호흡법이 끝나고 일어나기전에 곧바로 이어서 실시하는 것이

주42) 경희대학교 한의과 부속병원에 황희연 교수와 연구팀에 의하여 “호흡법을 중심으로 한 한방정신요법”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각종 질병을 예방 및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필자주)

좋다. 주의점은 명상호흡법과 같고 추가적으로 동작은 부드럽고 유하게 움직이며 끝을 끈거나 힘을 주지 않음이 좋고 마음은 경락을 따라 기가 운행하고 있어 손과 발에 이르고 있다고 마음을 집중시킨다. 또한 한 동작마다 반동없이 2-3분정도 계속 실시한다. 이러한 연공의 주의점을 유의하여 실시하게 될 도인법은 다음과 같다.

#### 1) 안면 도인법

1. 조용히 눈을 뜨고 숨을 흡하면서 고개를 젓히고 양손으로 목부터 얼굴끝까지 찰면(맛사지)을 한다. 이 동작은 목이나 턱 밑에 주름살을 없애는 효과를 낸다.(그림 6)



〈그림 6〉

2. 조용히 눈을 감고 눈과 이마, 광대뼈 턱부위를 흡하면서 시계방향으로 찰면하고 반대로 호하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맛사지 한다.(그림 7) 위와 같은 안면 도인법은 얼굴, 귀의 경혈운동을 원활히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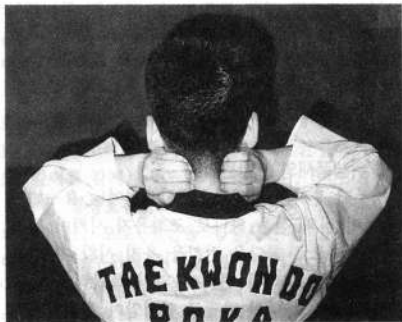


〈그림 7〉

#### 2) 고개 도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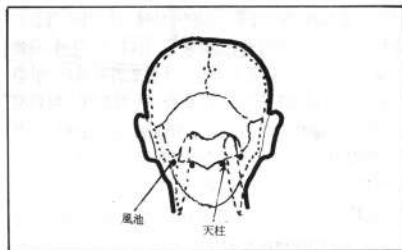
몸에 긴장을 풀고 뇌혈리를 개선하여 혈관을 원활히 해주고 맑게 해주며 무리하지 않게 실시 한다.

1. 손은 깍지를 끼고 흡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당기고, 호하면서 내린다. 이 때 양손은 풍지와 천주의 경혈을 자극 한다.(그림 8)



〈그림 8〉

천주란 목뒤 중앙의 두 줄기 굵은 근육이 머리에 연결되는 곳의 좌우 바로 바깥쪽을 가르키고 풍지란 뒷목 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서 좌우 2치를 말한다.(그림 9)



〈그림 9〉

2. 양손 끝으로 천주와 풍지를 번갈아 지압하며 숨을 쉰할 때 고개를 뒤로 젖혀 흔들고(좌우), 호흡할 때 고개를 원위치 시킨다. (그림 10)



<그림 10>

### 3) 어깨 도인법

이 도인법은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실시해야 한다.

1. 숨을 쉰하며 한쪽어깨를 힘껏 들어 올려 돌린다. 호흡하며 바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양 어깨를 번갈아 실시한다. (그림 11)



<그림 11>

2. 주먹으로 양어깨를 두들긴 후 숨을 호하며 양어깨를 동시에 반대쪽으로 돌린다. (그림 12)

이러한 동작은 양손에 경맥의 유주를 원활히 돕는다.



<그림 12>

### 4) 팔의 도인법

이 도인법은 무념의 상황에서 행공을 했을 때 효과가 크다.

1.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자연스럽게) 숨을 쉰하면서 오른쪽 젖가슴에서 원고 젖가슴쪽(45도)으로 서서히 밀며 호흡하면서 바로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오른손 팔꿈치를 펴지 않고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멈춘다. 이유는 팔꿈치를 뻗을 때 오른쪽 어깨에 힘이 가고 경혈의 운행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오른손과 함께 살짝 돌려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손을 반복하여야 하며 시선은 손(미는쪽의 손)끝을 향하여 따라 이동 한다. (그림 13)



<그림 13>

2. 양손 팔꿈치를 접고 양 옆구리를 새가 날개를 퍼듯이 흠을 하며 친다. 호하며 바로 한다. (그림 14)

위와 같은 행공법은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준다.



〈그림 14〉

#### 5) 허리 도인법

이 도인법은 특히 허리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행해야 효과가 크다.

1. 양손은 가지런히 편 상태에서 숨을 흡하며 한쪽 무릎을 가슴에 닿도록(무리하지 않게 한다) 하여 올린발의 무릎이 반대편 손에 닿도록 허리를 돌려 든다. 호하면서 바로 한다. (양 발 교대로 실시) 시선은 무릎 끝을 향한다. (그림 15)



〈그림 15〉

2. 양손을 팔장끼고 숨을 흡하면서 한쪽 다리를 접어 좌(우)측으로 돈다. 호하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 시선은 팔끝을 향한다. (그림 16)

위 도인법은 전신 근육을 한꺼번에 작용시켜 식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없애며, 만성위장병, 동맥경화증에 특히 효과가 좋다.



〈그림 16〉

#### 6) 가슴 도인법

이 도인법은 전신에 힘이 가도록 하며 근육과 근의 이완을 요하는 행공이다.

1. 숨을 흡하면서 머리 위로 젖히고 가슴을 활처럼 틀고 뼈와 근육을 이완시킨다. 이때 발 등 역시 곧게 끝쪽으로 편다. 호하면서 모든 자세를 바르게 한다. (그림 17)



〈그림 17〉

2. 숨을 흡하면서 두 손을 양 옆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젖히고 두다리를 발바닥이 닿도록 접어 붙이고 무릎을 벌리며 허리를 든다. 호하면서 자세를 바로 한다. (그림 18)



〈그림 18〉

위 도인법은 전신에 기가 흡수되고 폐활량을 촉진시켜 준다. 따라서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며 기분이 상쾌해 진다.

#### 7) 복부 도인법

끝으로 태권도위생품새전에 하단전에 원활한 호흡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공이다.

1. 숨을 흡하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선을 하단전에 위치하면서 두손으로 하단전을 가볍게 두드린다. (빠르게) 호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 (그림 19) 숨을 흡하면서 한쪽 다리를 편체로 올린다.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행하며 무리하면 오히려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 호하면서 천천히 바른 자세를 취한다.



〈그림 19〉

위 도인법을 행하며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 되었을 때를 감각에 의하여 아는 것이 더욱 좋으며 위장과 복부에 장기능을 건강하게 운행시키고 복부에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만성위장염에 효과를 더해 준다. (그림 20)



〈그림 20〉

태권도위생품새전에 위와 같은 도인법과 명상 호흡법을 이용하여 행공을 하는 것은 위생품새를 연공하기 위한 심심 준비단계라 보며 열심히 연공을 할 경우 노화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질병들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으며 노인이 되면서 운동제한에서 나타나는 관절질환 등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추론은 현대의학에서(정형외과, 신경정신과) 43) 44) 진료에 의해 이미 연구되어 밝혀 진바 있다. **태권도**

(다음호에 계속)

주43) 문명상, 우영균: 고령환자의 정형외과적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제 32권, 제 1호, 1989, pp.20-25 참조

주44) 박종환: 고령환자의 신경외과적 치료, 상계서, pp.26-31 참조

# 행사 기록

## 고단자 승단

### 2차 고단자 심사 합격자 (6.20, 국기원)

#### ▲ 6단 (18명)

정영규(강원) 안충기 김충진(경기) 김동규 최경식(부산) 한규학 조홍대 강원석 동지한 최두혁 이득만 조현주 배지영 정용택(경남) 송병각 이필호 정한영 정문교(서울)

#### ▲ 7단 (2명)

석시용(경남) 이현조(서울)

## 교 육

### 제6기 태권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자 명단(91명) (7.3-11, 국기원)

김정태 김도경 정정식 이필규  
우영일 김길호 최종원 김상철  
김명식 박승현 김윤석 한건수

정원석	최철수	임종빈	강익진
이재욱	위덕수	고윤규	최대엽
이기현	송인섭	전제성	이근우
허만오	한광욱	최성식	맹성호
이승환	송원호	박승수	권영윤
박상욱	신현석	민충기	소병준
김종동	김승렬	곽한성	방영근
조영래	윤상철	배현욱	이호우
박종석	정진산	배대식	이태영
이성준	최종철	이충일	김경우
김태호	박종백	전동환	김정만
김봉주	박정희	안재윤	이명영
김도래	윤종태	권문현	황태곤
김수일	송창경	김경보	김준호
이승수	김성삼	박성익	안희욱
이병문	박영석	오형남	김창식
유상진	김주열	이재춘	김경진
최재구	정인호	이규영	장대현
한진수	남금옥	민찬기	김윤식
김희수	김성록	최점현	

## 국제대회

###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대회 태권도경기 (8. 3-5, 블라우 그라나 체

## 육관)

### (여자부)

#### ▲ 핀급

- 1위 : LO, YUEH-YING (대만)
- 2위 : KURNIA, RAHMI (인도네시아)
- 3위 : BROADBENT, AMANDA JANE (영국)  
TORRES AMARILLAS, MONICA(멕시코)

#### ▲ 플라이급

- 1위 : DELGADO CAZORLA, ELISABET (스페인)
- 2위 : MUGGIRI, PIERA (이태리)
- 3위 : TAN, ARZU (터어키)  
POINDEXTER, TERRY (미국)

#### ▲ 밴텀급

- 1위 : 황은숙 (한국)
- 2위 : MURRAY, DIANE LYNN (미국)
- 3위 : NOBLE, CATHERINE (프랑스)  
HIL, KING HUNG (말레이시아)

#### ▲ 페더급

- 1위 : TUNG, YA-LING (대만)

- 2위 : ERGIN, AYSEGUL (터어키)  
 3위 : KNOLLE WEAVER, DOL-  
 ORES ANN (멕시코)  
 LUCERO, BEATRIZ (필리  
 핀)

▲ 라이트급

- 1위 : CHEN, YI-AN (대만)  
 2위 : SUSILAWATI (인도네시아)  
 3위 : 정은옥 (한국)  
 EL OUACEF, HAFIDA (알  
 제이리아)

▲ 웰터급

- 1위 : BENITEZ, ELENA (스페인)  
 2위 : GEFFROY, B. (프랑스)  
 3위 : VETTESE-BAERT, SHE-  
 LLEY (캐나다)  
 LANEY, JENNIFER D. (미  
 국)

▲ 미들급

- 1위 : 이선의 (한국)  
 2위 : KING, MARCIA CAT-  
 HERINE (캐나다)  
 3위 : PARMLEY, DENISE ANG-  
 ELA (오스트레일리아)  
 DROSIDOU, MORFOU (독  
 일)

▲ 헤비급

- 1위 : BISTUER RUIZ, CORAL  
 ASTRID (스페인)  
 2위 : GRAHAM, SUSAN (뉴질랜  
 드)  
 3위 : LOVE, LYNNETTE ALICIA  
 (미국)  
 CARMONA, ADRIANA (베  
 네주엘라)

(남자부)

▲ 핀급

- 1위 : SALIM, GERGELY (헝가리)  
 크)  
 2위 : MORENO, JUAN (미국)  
 3위 : ARGUDO SESMILO, JAV-  
 IER (스페인)  
 TRI AJI, JEFT (인도네시아)

▲ 플라야급

- 1위 : GOUVEIA COLINA, ARL-  
 INDO I. (베네주엘라)  
 2위 : TALUMEWO, DIRC RIC-  
 HARD (인도네시아)  
 3위 : 서성교 (한국)  
 WANS, MING-SUNG (대  
 만)

▲ 밴텀급

- 1위 : CORDOVA SANTAMARIA,  
 WILLIAM D. (멕시코)  
 2위 : NAJEM, SAYED YOUSSEF  
 (캐나다)  
 3위 : D ALISE, DOMENICO (이태  
 리)  
 FERNANDEZ, STEPHEN  
 (필리핀)

▲ 페더급

- 1위 : 김병철 (한국)  
 2위 : BOYALL, EKREM (터어키)  
 3위 : JUNG, WOO YONG (캐나  
 다)  
 MASSACESI, LUCA (이태  
 리)

▲ 라이트급

- 1위 : SANTOLARIA MARTOS,  
 JOSE (스페인)  
 2위 : ASKARI, FARIBORZ (이란)  
 3위 : KHALI, DJAMEL (프랑스)  
 CHOU, KUEI-MING (대

만)

▲ 웰터급

- 1위 : 하태경 (한국)  
 2위 : LEE, JAE HUN (캐나다)  
 3위 : MEHMANDOOST SOM-  
 ESARAYI, REZA (이란)  
 AL QAIMI, MOHAMMAD  
 JASSEM (쿠웨이트)

▲ 미들급

- 1위 : PEREZ, HERBERT (미국)  
 2위 : SOLIS GODOY, JUAN (스페  
 인)  
 3위 : IBRAHIM, KHALED (이집  
 트)  
 SBEIHT, AMMAR (요르단)

▲ 헤비급

- 1위 : 1위 : 김재경 (한국)  
 2위 : OGHENEJOB, EMM-  
 ANUEL PETERS (뉴질랜  
 드)  
 3위 : HOSKING, SIMON GRANT  
 (오스트레일리아)  
 HASSAN, AMR (이집트)

## 국내대회

### 제4회 경희대총장기 전국 남녀고교대회 (7.1-3, 국기원)

(남고부)

▲ 핀급

- 1위 : 김대훈 (동천고)  
 2위 : 김승윤 (남주고)  
 3위 : 장경석 (관악고)  
 김건수 (송림고)



▲ 플라이급

- 1위 : 유상문(성동교)
- 2위 : 최재훈(경상공교)
- 3위 : 고동완(전북체고)  
박명환(충생교)

▲ 밴텀급

- 1위 : 김형원(선인교)
- 2위 : 조진호(여수교)
- 3위 : 김 준(성동교)  
윤병관(광성교)

▲ 페더급

- 1위 : 김민우(부산체고)
- 2위 : 전영환(대전체고)
- 3위 : 장덕진(리라공교)  
정기원(선인교)

▲ 라이트급

- 1위 : 서배홍(오현교)
- 2위 : 이상훈(부산체고)
- 3위 : 차주한(경남체고)  
김실용(영북중교)

▲ 웰터급

- 1위 : 김동민(충북체고)
- 2위 : 박동철(동성교)
- 3위 : 이진우(선인교)  
이정진(덕소교)

▲ 미들급

- 1위 : 김승재(동성교)
- 2위 : 김상국(리라공교)
- 3위 : 빙원철(여수교)  
이동완(서울체고)

▲ 헤비급

- 1위 : 심재섭(동성교)
- 2위 : 김길곤(리라공교)
- 3위 : 이상억(송곡교)  
장우화(충북체고)

(여고부)

▲ 핀급

- 1위 : 양소희(천안여교)
- 2위 : 김보인(김제복교)
- 3위 : 박은경(김제상교)  
김자영(은광여교)

▲ 플라이급

- 1위 : 이순영(고양중교)
- 2위 : 이경수(은광여교)
- 3위 : 김지향(광명상교)  
천성희(충북체고)

▲ 밴텀급

- 1위 : 이지은(리라공교)
- 2위 : 진운순(광명상교)
- 3위 : 이은하(철원여교)  
이은양(천안여상)

▲ 페더급

- 1위 : 박경숙(은광여교)
- 2위 : 신동선(리라공교)
- 3위 : 이정숙(천안여교)  
권미영(장원여상)

▲ 라이트급

- 1위 : 김옥남(배성여상)
- 2위 : 김은이(고양여중교)
- 3위 : 채수진(혜성여교)  
강귀정(문성여상)

▲ 웰터급

- 1위 : 정윤경(송곡교)
- 2위 : 신은정(리라공교)
- 3위 : 김영희(덕소교)  
임인옥(은광여교)

▲ 미들급

- 1위 : 박은선(고양여중교)
- 2위 : 박상희(리라공교)
- 3위 : 김진희(장원여상)  
양춘희(김제복교)

▲ 헤비급

- 1위 : 박정숙(김제복교)

2위 : 라명숙(배성여상)

3위 : 정명숙(혜성여상)  
김윤경(경성여교)

제16회 연세대총장기 전국남녀 고교대회  
(7.20-22, 연세대 체육관)

(남고부)

▲ 핀급

- 1위 : 김홍일(대전체고)
- 2위 : 이강철(리라공교)
- 3위 : 김수경(대성교)  
강성일(영북중교)

▲ 플라이급

- 1위 : 고동완(전북체고)
- 2위 : 김윤식(전북공교)
- 3위 : 유동찬(대성교)  
손용주(통영교)

▲ 밴텀급

- 1위 : 김 준(성동교)
- 2위 : 조진호(여수교)
- 3위 : 조삼동(단대부고)  
송운기(고려교)

▲ 페더급

- 1위 : 김태호(성동교)
- 2위 : 정기원(선인교)
- 3위 : 문재성(강대부고)  
민경환(충북체고)

▲ 라이트급

- 1위 : 최만호(한성교)
- 2위 : 서배홍(오현교)
- 3위 : 차주한(경남체고)  
최재용(송림교)

▲ 웰터급

- 1위 : 문광선(광성교)
- 2위 : 백 익(부평기교)
- 3위 : 송 민(리라공교)

지창수(숭실고)

▲ 미술급

- 1위 : 정용국(리라공고)
- 2위 : 하태진(풍생고)
- 3위 : 손용구(대성고)  
조한호(천안중앙고)

▲ 해비급

- 1위 : 임호빈(강원사대부고)
- 2위 : 심재섭(동성고)
- 3위 : 이정훈(광성고)  
강우구(서울체고)

(여고부)

▲ 핀급

- 1위 : 김자영(은광여고)
- 2위 : 이인정(공향고)
- 3위 : 고승자(충북체고)  
서미나(정원고)

▲ 플라이급

- 1위 : 유수미(리라공고)
- 2위 : 이경수(은광여고)
- 3위 : 서명숙(천안여고)  
천성희(충북체고)

▲ 밴텀급

- 1위 : 원선진(효원고)
- 2위 : 진운순(광명상고)
- 3위 : 차춘희(고양여중고)  
이은미(국체고)

▲ 페더급

- 1위 : 신동선(리라공고)
- 2위 : 유순환(충북체고)
- 3위 : 김민정(강원부고)  
이정숙(천안여고)

▲ 라이트급

- 1위 : 김은이(고양여중고)
- 2위 : 김옥민(배성여상)
- 3위 : 조미래(리라공고)

김정기(인천체고)

▲ 웰터급

- 1위 : 임경화(배성여상)
- 2위 : 김영희(덕소고)
- 3위 : 정미화(김제북고)  
신은정(리라공고)

▲ 미술급

- 1위 : 박은선(고양여중고)
- 2위 : 임은지(은광여고)
- 3위 : 박상희(리라공고)  
양춘희(김제북고)

▲ 해비급

- 1위 : 신혜진(인천체고)
- 2위 : 정명숙(혜성여고)
- 3위 : 이점재(장원여상)  
박정숙(김제북고)

(단체상)

▲ 남고부

- 우승 : 성동고
- 준우승 : 리라공고
- 3위 : 광성고
- 감투상 : 강원사대부고
- 페어플레이상 : 통영고
- 최우수선수상 : 김 준(성동고)
- 지도상 : 성 동 고

▲ 여고부

- 우승 : 리라공고
- 준우승 : 고양여중고
- 3위 : 은광여고
- 감투상 : 배성여상
- 페어플레이상 : 목천고
- 최우수선수상 : 유수미(리라공고)
- 지도상 : 리라공고

(8.12-13,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 박인수(덕천국)
- 2위 : 김상철(마장국)
- 3위 : 고동영(서귀중앙국)  
이순재(단대국)

▲ 플라이급

- 1위 : 김상순(마장국)
- 2위 : 김대룡(성산국)
- 3위 : 신진우(석수국)  
박철준(송추국)

▲ 밴텀급

- 1위 : 장재성(마장국)
- 2위 : 이주봉(신시흥국)
- 3위 : 최성호(은천국)  
이원재(단대국)

▲ 페더급

- 1위 : 진홍근(용인국)
- 2위 : 최한석(강덕국)
- 3위 : 최원석(면목국)  
김효식(서룡국)

▲ 라이트급

- 1위 : 신영재(서원국)
- 2위 : 김재관(면목국)
- 3위 : 정명기(마장국)  
이은석(강덕국)

▲ L-웰터급

- 1위 : 이택규(부원국)
- 2위 : 손두섭(은천국)
- 3위 : 김진호(상원국)  
이주영(남성국)

▲ 웰터급

- 1위 : 이창희(신시흥국)
- 2위 : 지영진(마장국)
- 3위 : 양원길(양동국)

제13회 체육청소년부장관  
기 전국국민학교대회

정기환(서원국)

▲ L-미들급

- 1위 : 양창일 (신례국)
  - 2위 : 신성완 (정목국)
  - 3위 : 서중우 (양명국)
- 장우환(수창국)

▲ 미들급

- 1위 : 광영민(아양국)
  - 2위 : 한진민(은천국)
  - 3위 : 이동수(강덕국)
- 이종현(남성국)

▲ L-헤비급

- 1위 : 조동국(용인국)
  - 2위 : 서경환(천호국)
  - 3위 : 강성렬(서릉국)
- 정광현(신시흥국)

▲ 헤비급

- 1위 : 박봉희(송관국)
  - 2위 : 문주현(용인국)
  - 3위 : 황규정(미동국)
- 현재호(아양국)

(여자부)

▲ 핀급

- 1위 : 안정아(태평국)
  - 2위 : 이은지(쌍문국)
  - 3위 : 전현숙(충무국)
- 이세미(석수국)

▲ 플라이급

- 1위 : 김경희(쌍문국)
  - 2위 : 김원희(양동국)
  - 3위 : 조선미(성남동국)
- 이진영(은천국)

▲ 밴텀급

- 1위 : 은성희(은천국)
- 2위 : 정필교(용인국)
- 3위 : 전국진(정목국)

류선미(염창국)

▲ 페더급

- 1위 : 이명선(서기포국)
- 2위 : 박효정(석수국)
- 3위 : 윤진영(강신국)

▲ 라이트급

- 1위 : 황주영(강덕국)
  - 2위 : 윤수진(성남동국)
  - 3위 : 최은미(보광국)
- 우주연(용인국)

▲ L-웰터급

- 1위 : 정효진(용인국)
  - 2위 : 나지숙(석수국)
  - 3위 : 강현희(금촌국)
- 김선옥(은천국)

▲ 웰터급

- 1위 : 서진(은천국)
  - 2위 : 백설(석수국)
  - 3위 : 전슬기(강신국)
- 오경옥(부원국)

▲ L-미들급

- 1위 : 양혜정(신례국)
- 2위 : 정국희(정목국)
- 3위 : 유진아(석수국)

▲ 미들급

- 1위 : 이주영(석수국)
  - 2위 : 김은실(성남동국)
  - 3위 : 김유경(강신국)
- 주지영(강덕국)

▲ L-헤비급

- 1위 : 오정희(쌍문국)
- 2위 : 남지영(강덕국)
- 3위 : 오현정(금촌국)

▲ 헤비급

- 1위 : 남보라(석수국)
- 2위 : 이윤진(정목국)
- 3위 : 한정님(용인국)

김미정(강덕국)

**제3회 체육청소년부장관  
기 전국남녀 중고대회  
(8.16-22, 잠실학생체육관)**

(남고부)

▲ 핀급

- 1위 : 장경호(송실고)
  - 2위 : 김기태(동성고)
  - 3위 : 소병관(동성고)
- 윤종일(풍생고)

▲ 플라이급

- 1위 : 최영석(풍생고)
  - 2위 : 김인동(풍생고)
  - 3위 : 황병련(리라공고)
- 유삼문(성동고)

▲ 밴텀급

- 1위 : 이임수(개금고)
  - 2위 : 이동규(대전체고)
  - 3위 : 장일태(대전체고)
- 이남규(전북체고)

▲ 페더급

- 1위 : 장덕진(리라공고)
  - 2위 : 최성훈(동천고)
  - 3위 : 조국환(개금고)
- 하대철(단대부고)

▲ 라이트급

- 1위 : 진준수(서울체고)
  - 2위 : 이상훈(부산체고)
  - 3위 : 홍중우(충북체고)
- 박승현(부산체고)

▲ 웰터급

- 1위 : 박신준(부산체고)
  - 2위 : 허준석(인천체고)
  - 3위 : 이재성(대전체고)
- 송기석(송림고)

▲ 미들급

- 1위 : 이동완(서울체고)
- 2위 : 김상국(리라공고)
- 3위 : 정용국(리라공고)  
장현철(리라공고)

▲ 헤비급

- 1위 : 심재섭(동성고)
- 2위 : 이상억(송곡고)
- 3위 : 강한구(리라공고)  
문권수(풍생고)

(여고부)

▲ 핀급

- 1위 : 김보인(김제북고)
- 2위 : 양소희(천안여고)
- 3위 : 김자영(은광여고)  
이인정(공향고)

▲ 플라이급

- 1위 : 최재숙(송곡고)
- 2위 : 유수미(리라공고)
- 3위 : 김지향(평명상고)  
이순희(효성고)

▲ 밴텀급

- 1위 : 진용순(광명상고)
- 2위 : 김미영(주덕고)
- 3위 : 함진희(리라공고)  
송선영(배성여상)

▲ 페더급

- 1위 : 박경숙(은광여고)
- 2위 : 김미선(주덕고)
- 3위 : 신해경(목천고)  
이정숙(천안여고)

▲ 라이트급

- 1위 : 윤미영(충북체고)
- 2위 : 김옥남(배성여상)
- 3위 : 조미례(리라공고)  
채수진(혜성여고)

▲ 웰터급

- 1위 : 정윤경(송곡고)
- 2위 : 유은진(문산중고)
- 3위 : 김희희(덕소고)  
임경화(배성여상)

▲ 미들급

- 1위 : 박상희(리라공고)
- 2위 : 박은선(고양여중고)
- 3위 : 채희정(인천체고)  
송지수(인천체고)

▲ 헤비급

- 1위 : 정명숙(혜성여고)
- 2위 : 박정숙(김제북고)
- 3위 :곽정선(인천체고)  
이점재(장원여상)

(남중부)

▲ 핀급

- 1위 : 이주환(풍생중)
- 2위 : 민병석(단대부중)
- 3위 : 김은성(전주중)  
김중성(여수중)

▲ 플라이급

- 1위 : 마성수(여수중)
- 2위 : 이 철(여수중)
- 3위 : 안정준(당곡중)  
강찬규(구월중)

▲ 밴텀급

- 1위 : 박희철(관교중)
- 2위 : 최병준(경수중)
- 3위 : 김창식(풍생중)  
박명훈(군산중앙중)

▲ 페더급

- 1위 : 오중오(당곡중)
- 2위 : 이춘기(배명중)
- 3위 : 박상규(경수중)  
홍범석(부천동중)

▲ 라이트급

- 1위 : 김윤식(동성중)
- 2위 : 한선희(당곡중)
- 3위 : 안정일(한영중)  
이후연(여수중)

▲ L-웰터급

- 1위 : 박상규(구월중)
- 2위 : 강병철(한영중)
- 3위 : 김종선(광주체중)  
김상혁(경수중)

▲ 웰터급

- 1위 : 박태성(한영중)
- 2위 : 박진형(경수중)
- 3위 : 김선진(단대부중)  
김형진(구월중)

▲ L-미들급

- 1위 : 최남규(해동중)
- 2위 : 최환서(용곡중)
- 3위 : 조학연(성남서중)  
곽영진(천안북중)

▲ 미들급

- 1위 : 이 룡(경수중)
- 2위 : 이재성(구월중)
- 3위 : 한상협(한영중)  
박정권(구월중)

▲ L-헤비급

- 1위 : 이효덕(영북중)
- 2위 : 서현석(구월중)
- 3위 : 김기동(한영중)  
임병문(경수중)

▲ 헤비급

- 1위 : 박창진(개성중)
- 2위 : 백진우(용곡중)
- 3위 : 이호진(신림중)  
김성훈(구암중)

(여중부)

▲ 편급

- 1위: 정재은(강남여중)
- 2위: 황지현(만수여중)
- 3위: 전성아(제천여중)  
이정윤(기흥중)

▲ 플라이급

- 1위: 송연화(만수여중)
- 2위: 노경민(대원여중)
- 3위: 강선미(동인천여중)  
이승의(용곡중)

▲ 밴텀급

- 1위: 김수홍(홍덕중)
- 2위: 최영아(자양중)
- 3위: 박미연(대원여중)  
김윤정(매항여중)

▲ 페더급

- 1위: 김은미(대원여중)
- 2위: 최윤희(문창여중)
- 3위: 장정은(고려중)  
이은옥(천안동여중)

▲ 라이트급

- 1위: 이선영(쌍문중)
- 2위: 강소영(만수여중)
- 3위: 김희진(자양중)  
김미현(신관중)

▲ L-웰터급

- 1위: 황유지(자양중)
- 2위: 이정숙(대원여중)
- 3위: 최윤미(기흥중)  
윤진주(가정여중)

▲ 웰터급

- 1위: 강해은(용곡중)
- 2위: 전기숙(만수여중)
- 3위: 김문자(자양중)  
정선희(당진중)

▲ L-미들급

- 1위: 이현희(대원여중)

- 2위: 신현순(자양중)
- 3위: 주지혜(만수여중)  
정현옥(백제중)

▲ 미들급

- 1위: 김명순(동인천여중)
- 2위: 라인애(만수여중)
- 3위: 임영지(영란중)

▲ L-헤비급

- 1위: 강혜진(만수여중)
- 2위: 최화수(동인천여중)
- 3위: 최은정(부천동여중)  
김영혜(기흥중)

▲ 헤비급

- 1위: 최민정(대원여중)
- 2위: 박효숙(대원여중)
- 3위: 서정화(동인천여중)

(단체상)

▲ 남고부

- 우승: 리라공업고등학교
- 준우승: 서울체고
- 3위: 부산체고, 동성고
- 장려상: 강화고
- 최우수상: 장덕진(리라공고)
- 지도자상: 박영수(리라공고코치)

▲ 여고부

- 우승: 리라공업고등학교
- 준우승: 은광여고
- 3위: 배성여상
- 감투상: 천안여고
- 장려상: 천안여상
- 최우수상: 박상희(리라공고)
- 지도자상: 유수철(리라공고감독)

▲ 남중부

- 우승: 경수중
- 준우승: 구월중
- 3위: 한영중

- 감투상: 당곡중
- 장려상: 여수중
- 최우수상: 이 룡(경수중)
- 지도자상: 임순길(경수중코치)

▲ 여중부

- 우승: 만수여중
- 준우승: 대원여중
- 3위: 자양중
- 감투상: 동인천여중
- 장려상: 기흥중
- 최우수상: 최민정(대원여중)
- 지도자상: 김영수(대원여중코치)

**제15회 회장기 전국대학  
대항대회 및 제2회 격파  
경연대회**  
(8.28-29, 올림픽제1체육관)

(남대부)

▲ 편급

- 1위: 조재성(경희대)
- 2위: 이대훈(체과대)
- 3위: 김정오(경원대)  
김호석(관동대)

▲ 플라이급

- 1위: 유성호(체과대)
- 2위: 조현식(조선대)
- 3위: 민경필(충남대)  
이무현(관동대)

▲ 밴텀급

- 1위: 김현용(경희대)
- 2위: 고창현(조선대)
- 3위: 김진홍(군산대)  
윤희준(충남대)

▲ 페더급

- 1위: 이안호(경희대)
- 2위: 심성구(동아대)

3위 : 김정호(경희대)  
조희진(청주대)

▲ 라이트급

1위 : 박세진(경희대)  
2위 : 지광현(체과대)  
3위 : 박기재(한체대)  
정을진(경희대)

▲ 웰터급

1위 : 최기선(관동대)  
2위 : 신광수(한체대)  
3위 : 홍문주(동아대)  
임상도(경상대)

▲ 미들급

1위 : 강동국(동아대)  
2위 : 최승길(체과대)  
3위 : 김기남(경원대)  
김정규(경희대)

▲ 헤비급

1위 : 김봉근(경희대)  
2위 : 김형태(조선대)  
3위 : 박형래(체과대)  
신원덕(인천대)

(여대부)

▲ 판급

1위 : 유수진(경희대)

2위 : 강선경(상명여대)

▲ 플라이급

1위 : 모선영(한체대)  
2위 : 이화진(경희대)  
3위 : 박은미(성신여대)  
장이숙(상명여대)

▲ 밴텀급

1위 : 이승민(경희대)  
2위 : 황은숙(상명여대)  
3위 : 정유경(상명여대)  
김은숙(체과대)

▲ 페더급

1위 : 윤소정(체과대)  
2위 : 이현화(경희대)  
3위 : 윤 희(한체대)  
권혁실(체과대)

▲ 라이트급

1위 : 박정희(한체대)  
2위 : 진혜윤(경희대)  
3위 : 서연화(성신여대)  
윤명숙(상명여대)

▲ 웰터급

1위 : 이영미(성신여대)  
2위 : 박선미(상명여대)  
3위 : 이미라(성신여대)  
백정자(동명전문대)

▲ 미들급

1위 : 이성미(상명여대)  
2위 : 이은주(성신여대)  
3위 : 이용화(체과대)  
박혜영(경희대)

▲ 헤비급

1위 : 백영미(경희대)  
2위 : 박은주(상명여대)  
3위 : 장 철(경희대)  
추수연(체과대)

(단체전)

▲ 남자부

1위 : 경희대(금4, 은2, 동1)  
2위 : 체과대(금1, 은2, 동1)  
3위 : 동아대(금1, 은1, 동1)  
감투상 : 관동대(금1, 동2)  
장려상 : 조선대(은3)

▲ 여자부

우승 : 경희대(금3, 은3, 동2)  
준우승 : 한체대(금2, 동1)  
3위 : 상명여대(금1, 은4, 동3)  
감투상 : 성신여대(금1, 은1, 동3)  
장려상 : 체과대(금1, 동4)

'92년 10~12월

# 행사안내

▲ 10. 2~ 3: 제18회 국민학교  
연맹회장기(국기원)

▲ 10.11~16: 제73회 전국체육  
대회 태권도경기(대구)

▲ 10.12~15: 제3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멕시코 과달라하라)

▲ 11.11~13: 92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국기원)

▲ 12. 9~11: 제1회 태권도한  
마당(울림errick공원 펜싱경기장)

▲ 12.15~18: '9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펜싱경기장)

#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

The Taekwondo event of The 25th  
Barcelona Olympiad 1992



© 1988 COOB'92 S.A. TM

전세계 172개국  
1만6천여명이 참가, 최대 선수, 최다 참가국으로  
최고의 대회로 치러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한국스포츠는 세계7위를 차지하며  
스포츠타권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8월3일부터 5일까지 바르셀로나 팔라우 브라우그라나에서  
치러진 태권도경기는 스페인 까를로스국왕이 경기를 참관 하는등  
최고 인기 스포츠임을 보여주었다.

▼태권도 경기가 펼쳐진 팔라우브라우 그라나체육관에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교민들.







▲태극부세를 흔들며 입장하는 한국 대표선수단

## 민주의 메인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인류의 축제 개막식



◀지중해의 푸르름과 옛 해안제국 스페인의 영화를 상징하는 「지중해 올림픽의 바다」를 보여준 개막식 행사.





▲88서울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허태경은 이번 올림픽대회서도 우승,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김병철은 배드민턴 우승, 김제경은 해비급 우승을 차지했으나 플라이급의 서성교는 3위에 머물렀다.(8.12. 환영카퍼레이드)

## 남자부 종합우승차지하며 개선! 여자부 대만, 스페인에 이어 3위



▶중국 여자대표팀은 대만과 주최국 스페인의 세션 도전속에 뽀뽀급의 황은숙과 미들급의 이신희가 금메달, 라이트급의 정은옥이 3위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 베트남 하노이에서 20년만에 태권도 시범

The 1st Taekwondo demonstration in Hanoi, Vietnam after 1972.

베트남 올림픽 위원회의 초청으로 20년만에 파견된 한국대표팀은 호치민시에서 태권도시범 및 경기, 수도 하노이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 종식후 공산화된 베트남과의 첫번째 스포츠류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클 뿐더러 향후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 단장으로 파견된 강원식 협회 전무이사는 베트남올림픽위원회 TA QUANG CHIEN 위원장에게 기념품을 증정.

▼하노이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대표팀과 베트남 NOC위원장, 하노이 태권도연맹회장 등이 함께 기념 촬영.



# 시도지부 회장단 간담회

The Executive Meetings of  
KTA Branches with  
President Choi, Saechang

1992. 9.29 육군회관

최세창 대한 태권도  
협회장은 9월29일 15개  
시도지부및 3개연맹의  
회장단을 초청, 태권도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최회장은 태권도의 새로운 발전계기가될 제1회 태권도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 되도록 시도지부에서 적극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도지부회장단은 전국체전과 대학및  
실업팀 육성, 홍보대책등 태권도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숙의하였다.



제13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8.12-13, 국기원

The 13th Primary School TKD Championships for Sports Minister's Flag

## 경기 마장 · 경기 석수 남녀부 우승





제3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대회  
8.16-23, 잠실학생체육관

## 리라공고 남녀 고등부 “최강” 경수중 · 만수여중 중등부 패권

The 3rd Middle & High School TKD Championships for Sports Minister's Flag



▲중등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이 봉(경수중)



제15회 회장기 전국대학대회 및 제2회 격파 경연대회

8.28-29, 올림픽 제1체육관

## 경희대, 남녀 종합우승차지

The 15th National Collegiate TKD Championships for President's Flag



◀ 우승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이정길회장.

▶ 개회식공개행사 중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시범단이 보여준 필요한 시범.





▲ 경희대 조영식총장이 대표선수 선수를 받고 있다.

제4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7.1-3, 국기원

동성고·리라공고  
남녀부 우승

The 4th National Highschool TKD  
Championships for Kyunghee  
Univ. President's Flag



제16회  
연세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7.20-22, 연세대체육관

성동고·리라공고  
남녀부우승

The 16th National Highschool  
TKD Championships for  
Yonsei Univ. President's Flag



▶리라공고는 여자부 우승,  
남자부 준우승을 차지했다.